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2014년 1월 1일부터
관공서·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할 때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999 ← 1 경북대로
Gyeongbuk-daero

우편, 택배, 인터넷쇼핑 등 일상에서도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로 생활하세요!



주소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세요 www.juso.go.kr
지번주소, 건물명을 검색창에 입력하면
내가 찾는 도로명주소가 한 눈에!



스마트폰에서 찾아보세요 '주소찾아' 앱(App)
건물번호판을 비추거나, 건물명을 검색하면
내가 찾는 도로명주소가 한 손에!

'주소찾아' 앱(App)은 안드로이드, iOS, 윈도우, 맥, 블랙베리, U플래시앱이팅에서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에서 찾아보세요
검색창에 지번주소를 입력하면
내가 찾는 도로명주소가 한 번에!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새벽을 여는 경북·일자리가 있는 경북

Pride
Gyeongbuk
프라이드 경북

하루

[통권 397호]
SPRING

CONTENTS

PRIDE GYEONGBUK

SPRING. VOL.397

6. June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영주 소백산철쭉제 소백산 일원(5.31~6.1) 호비소4 포항시청 문화동 대강홀 (5.31~6.1)	2	3 6월 The Classic 안동 문화예술의전당 백조홀	4	5 두대의 피아노와 만나는 춤곡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2014 천마무용단 정기공연 경산 천마아트센터 그랜드홀	6 어린이미술콘서트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7
8	9	10 성승환의 씨네마 콘서트 감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여우야 뭐하니 - 동산에 꽃피면 나하고 놀자 - 구미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6.10~6.12)	11 콘서트 뮤지컬 '언제는 행복 하지 않은 순간이 있었나요'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6.11~6.28)	12	13 연극 옥탑방 고양이 안동 문화예술의전당 백조홀 (6.13~6.14) 가족발레 -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안동 문화예술의전당 웅부홀 (6.13~6.14) 영역 물가지미축제 영덕군 축산면 일원 (6.13~6.15)	14 2014 구미무용제 구미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위드미사7 - 장기하와 얼굴들 콘서트 경산 천마아트센터 그랜드홀 프린세스 마리 경산 천마아트센터 챔버홀
15 개그코미디N빅리그 경주 예술의전당 구미남성합창단 제18회 정기연주회 구미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16	17	18	19 경산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경산 천마아트센터 그랜드홀	20 뮤지컬 안향 영주문화예술회관 까치홀 (6.20~6.21)	21 꼬마버스 타요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6.21~6.22)
22	23	24	25 어린이인형극 - 천녀와 나무꾼 안동 문화예술의전당 백조홀 (6.25~6.28)	26	27	28 아너스 합창단 정기연주회 경산 천마아트센터 그랜드홀 뽀로로 탐험대 크롱을 구해줘 구미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6.28~6.29)
29	30					

7. July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경주작가필레이 박미경展 알찬갤러리 (7.1~7.20)	2	3 '아동극' 누가 내 머리에 종 썼어?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경주시립극단 제103회 정기 공연 아버지, 나의 아버지 경주예술의전당 소공연장 (7.15~7.20)	16	17 '오페라마콘서트' 오페라마는 이야기이다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18	19
20	21	22 경주작가필레이 이은정展 알찬갤러리 (7.22~8.10)	23	24	25	26 봉화은어축제 봉화읍 내성천 일원 (7.26~8.2)
27	28	29	30	31 포항국제불빛축제 형산강체육공원, 영일대(북부) 해수욕장 (7.31~8.3)		



표지 이야기

영덕 풍력발전단지
기분좋은 친환경 바람이 불어옵니다.

_영덕군청 제공

Special Theme

- 04 경상북도, 공약이행평가 '그랜드슬램' 달성!
- 06 2014 해양실크로드 글로벌 대장정 나선다!
- 08 해양실크로드 따라 경북 정체성 찾아 나선다!
- 09 울진 후포항, 거점형 마리나로 선정

알찬살림 부자경북

- 10 경상북도 투자유치, '첨포'는 없다!
- 12 경북도,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 위해 잔결음
- 13 경상북도 농가 소득, 2년 연속 최고치 경신

웃음가득 행복경북

- 14 경상북도 귀농, 10년 연속 부동의 전국 1위
- 16 영주시에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
- 17 어업창업 지원 등 '귀어·귀촌 창업 지원사업' 추진

밝은미래 희망경북

- 18 Why? 독도!
- 21 경상북도 명품 걷기여행 '영남 옛길 답사'

도민사랑 일류경북

- 22 울릉도·독도 이어 전국 네 번째로 청송 국가지질공원 인증
- 24 포항시 새로운 랜드마크 '포항운하'

쉬어가기

- 26 경북의 전통시장 - 봉화상설시장
- 28 이서국에서 청도군까지 역사를 한 눈에... 청도박물관
- 30 영천 임고면 수호천사 집배원을 아시나요?
- 32 이 한 권의 책 - '경북독립운동사' 완간, 만화 '경북흔 이야기'

프라이드 News+

- 34 찰칵! 경북의 오늘
- 38 도정단신
- 43 도의회 소식
- 50 경북 알리미
- 53 건강 플러스



SPRING

- 발행처 | 경상북도 · 발행인 | 김관용 · 편집인 | 권영길 · 발행일 | 2014년 06월 05일
- 문의처 | 경상북도 대변인실 702-702 대구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1445-3)
TEL. 053)950-3058 FAX. 053)956-4926
- 도정 홍보지 「프라이드 경북」의 구독을 원하시거나 주소가 바뀌신 분은
경북도청 대변인실(053.950.3058)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소비자연맹 1위,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대상까지 독보적 성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평가 '4년 연속 최우수'



경상북도가 전국 지자체 공약이행 평가를 대표하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4월 2일 발표한 민선5기 시·도지사 공약이행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SA등급을 받았다.

경상북도는 이번 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최우수 등급 수상으로 법률소비자연맹과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 이어 3대 공약이행 평가기관 모두로부터 최고 평가를 받아 광역자치단체의 공약 실천 평가에서 명실상부한 '그랜드슬램' 달성에 비유되는 만큼 독보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경북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 감시, 평가에 있어서 가장 권위 있는 순수민간단체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법률소비자연맹, 한국여성유권자연맹으로부터 각각 4년 연속 최우수 평가(2011~2014), 공약이행 전국 1위(2014), 그리고 여성정책평가 대상(2013)을 수상해 공약 실천이 가장 우수한 '광역자치단체'임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로부터 최우수 SA등급을 받은 주요 요인을 분석해 보면, 민선5기 20조원 투자유치 목표 달성, 농업·복지 모범사업 평가 및 첨단 신산업 육성사업 성과, 전국 최초로 여



【경상북도 공약이행 평가 수상내역】



성정부부지사 임용 등 돋보인 여성정책, 국비 10조원 확보를 통한 국가사업과 SOC 확충 등의 성과를 내 93.8%의 높은 공약 이행률을 달성했고, 공약 이행을 위해 매분기 공약사항을 자체 점검해 가용예산을 우선 반영하는 등 타 시·도와 차별화된 노력을 해 온 결과로 보인다.

이번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민선5기 최종 공약이행 평가는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3월 말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의 공약 내용, 공약이행 자료와 해당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소명자료 등을 토대로 엄정한 평가를 거쳐 5개 등급(SA, A, B, C, D)으로 구분하여 발표했다.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표 평가를 위해 전국의 시민사회활동가, 교수, 전문가 등 45명의 매니페스토 평가단을 별도로 구성해 목표달성(100점), 공약이행 완료(100점), 주민소통(100점), 웹소통(100점), 공약일치도(100점) 등 5개 분야를 전문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광역자치단체 정책과 공약실천의 최종 성적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한국 대표 법률NGO이면서 공약이행 평가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에서도 지난 3월 7일 심층적인 전국 시·도 공약이행 평가 발표에서 서울, 경기 등 수도권 대표 지자체를 제치고 경북을 공약이행 '전국 1위'로 평가 선정했다.

특히 이 평가에서는 상근 모니터 요원, 대학생, 자원봉사자 등 무려 224명의 다양한 계층과 분야별 평가단의 종합적인 검증을 통해 수상한 결과라 더욱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지난해 11월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은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다문화 등 여성정책분야 공약이행을 전국적으로 평가해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경북을 평가위원 만장일치로 '대상'을 확정한 바 있다.

경북도는 전국 17개 시·도중에서 이처럼 공약 내용과 이행 평가에서 독보적 평가와 큰 성과를 낸 것은 경북의 역사성과 자부심을 바탕으로 한 경북의 정체성이 공약 실천이라는 약속으로 발현된 것이며, 무엇보다 우수한 경북형 정책과 공약사업들을 도민의 땀과 노력으로 함께 만들어 온 성과라고 강조하면서 도정의 추진동력을 더욱 높여 경북 도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힘 있고 발전하는 경북, 희망 경북을 만들어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리아 실크로드 프로젝트 이제는 바다로...

9개국 10개항 걸쳐 실크로드 바닷길 집중 재조명



KOREA SILKROAD PROJECT

경상북도는 지난 해 육로 실크로드 탐험에 이어 올해 9월부터 해양실크로드 대장정에 나서기로 하고, 4월 1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경상북도지사 권한대행 주낙영 행정부지사, 손재학 해양수산부차관, 박한일 한국해양대학교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 해양실크로드 글로벌 대장정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해양실크로드 글로벌 대장정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해양수산부, 경상북도, 한국해양대학교가 상호 업무협약을 맺고, 해양실크로드 문화 재조명과 실크로드 국가와의 상호교류 및 통상강화를 통해 해양국가(海洋國家)로서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창조적 해양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해양실크로드 탐험대는 한국해양대학생과 선발대원 등 200명으로 구성, 오는 9월 15일 경주에서 출정식을 열고 한국해양대의 한바다호를 이용해 중국 광저우, 베트남 다낭 등을 거쳐 이란 반다르압바스까지 60여 일간 9개국 10개항을 거치는 대장정에 오른다.

경북도는 탐험대 운영과 함께 해양실크로드 역사·문화 재조명,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 기록·홍보 사업 등 4가지 분야로 나누어 글로벌 대장정을 추진하고, 국제학술회의, 해양실크로드 사진·도록 편찬 등 역사·문화 재조명 사업으로 학계 및 일반인의 관심을 고조시킬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실크로드 거점지역과 문화교류협정 체결과 우호 기념비 설치, 해양실크로드 다류제작, 백서 및 화보 발간, 대국민 홍보사업 등 다양한 기록·홍보사업을 추진한다.

2014 해양실크로드 글로벌 대장정은 실크로드를 매개로 역사 재조명, 신 한류문화 전파, 경제영토 확대,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해 진행되는 '코리아 실크로드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경북도에서는 이번 해양실크로드 프로젝트를 해양수산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한국해양대학교와 공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해양탐험정신, 개방성·진취성 등의 해양문화를 계승·발전 도모하고, 문화교류를 통한 창조적 산업화 연계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해양실크로드 따라 '해외동포 정체성 찾기 사업' 추진

‘해양실크로드를 따라 흐른 경북의 꿈 - 세계시민으로 사는 경북인’

경상북도는 도정 역점시책사업의 하나인 경북의 정체성 찾기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는 ‘해외동포 정체성 찾기’ 추진계획을 확정, 지난 2010년 중국 동북3성, 경상도 마을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해외동포 정체성 찾기’ 사업을 시작한 이래 5회째를 맞은 올해에는 해양실�크로드 글로벌 대장정과 함께 하기로 했다.

해양실크로드 글로벌 대장정 경로 중 동포사회가 형성되어 교류가 활발한 중국 광저우, 베트남 호치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도 뉴델리 등 4개 지역을 선정, ‘해양실크로드를 따라 흐른 경북의 꿈 - 세계시민으로 사는 경북인’이라는 주제로 동포들의 이주역사, 삶의 애환, 경제 문화교류 등의 이야기들을 재조명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사단법인 인문사회연구소와 공동으로 동포들의 구술 등을 통해 고향에 대한 기억, 생애 이야기, 그들이 지킨 전통문화와 현장 등을 병행 취재해 다큐멘터리를 제작·방영하고, 올해 10월 해양실크로드 탐방기간 중 정박지역에서 경북도립국악단과 현지동포공연단의 합동 공연, 기능 명장으로 구성된 경북기술 숙련회 회원들의 봉사활동, 경제교류간담회 등을 추진하는 문화교류 한마당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해외동포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 제작하고, 연말에는 사업기간 동안 수집한 기록영상, 지역 풍경, 풍속, 인물 등 전시회를 개최하며, 전시회 기간 중 재외 한인동포들의 생애, 사건, 생활문화 등 삶의 자취를 인문학적 시각으로 재평가하고, 지역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인문학 강좌도 개설할 계획이다.

이러한 사업들을 위해 먼저 3월 중 해당 지역들의 문헌자료, 동포 거주현황 등 사전 기초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4월에 경상북도, 인문사회연구소, 스토리 작가로 구성된 현지조사팀을 파견하여 한인동포 방문 면담, 현황 등을 파악하고, 6월에는 다큐멘터리 취재팀이 약 1개월간 현지에 상주하면서 자료수집, 구술 및 면접 등을 통한 현지 주민 취재, 대상지역의 생활공간, 특색 등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예정이다.

5월부터 9월까지의 콘텐츠 스토리북 제작을 위한 기획, 현지조사, 수집자료 정리, 사진 촬영 등을 수행하고, 10월 이후에는 콘텐츠 전시회를 위한 콘텐츠 가공, 디자인 등의 작업을 시행, 12월 중에는 일련의 과정들을 평가하는 사업 보고회를 개최한다.

울진 후포항 동해안 마리나 중심항으로 개발

동해안권 해양레저산업 및 해양관광발전 중요한 계기



경상북도는 올신 후포항을 동해안 마리나 중심항으로 개발한다. 올
진 후포항은 지난 해 3월 전국 6개 거점형 마리나 항만의 하나로 선정
되어 오는 8월에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다.

거점형 마린나 항만은 국가가 예산을 지원해 우선적으로 마린나 항만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양수산부는 마린나 항만 기본계획상 전국 46개소 중에서 거점형 마린나 6개소를 선정했다.

동해안권에는 경북 울진 후포항이 울산 진하와 함께 거점형 마리나로 선정되어 방파제 등 기반시설 조성에 최대 300억원 이내의 국비지원을 받는다.

경북도에서는 거점형 마린나 항만의 개발로 육상 및 해상기능시설, 육상지원시설, 배후권 연계시설이 유기적으로 계획되어 동해안의 마린나 관련 산업 육성에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요트, 보트 등 해양레저, 스포츠 활동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으나 동해안권 마리나 시설은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국가 지원의 저점형 마리나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해양레저 장비산업은 매년 100만척 규모의 새로운 레저장비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문가들은 경북 동해안에 요트, 보트 등 레저선박이 드나들 수 있는 마리나항만이 조성되면 이와 관련된 레저용선박 산업 및 수리시설, 선박부품 등 관련 산업과 동반성장이 가능해져 동해안권 해양레저산업 및 해양관광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마리나(Marina)?

바다와 관계된 모든 유취, 관람시설, 놀이기구시설, 해양어류수족관시설, 잠수함해저관람, 유람선, 선상낚시나 다이빙, 보트나 선박선착장 등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로서 해안가에 방파제 등을 쌓아 파도가 없는 수역을 확보하고, 요트를 정박시킬 수 있는 시설과 육상에 요트클럽 하우스, 요트수리소, 요트적치장, 급유소 등 요트를 타는데 필요한 모든 시설을 갖춘 요트전용항구를 '마리나'라고 한다.



성주2일반산업단지 투자유치 이어져

신규인력 채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 희소식

경상북도와 성주군은 5월 14일 경상북도지사 권한대행 주낙영 행정부지사, 전희식 성주군수 권한대행, (주)고려제지, 신성애스엔티(주), 명광산업(주) 등 3개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성주2일반산업단지에 투자금액 838억원, 신규고용 265명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또한 4월 15일에도 성주군청에서 (주)모토닉, (주)엔디에프인더스, (주)유원, (주)아진피앤피, (주)금성칼라팩 등 투자기업 5개사와 성주2일반산업단지로 공장이전 건립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성주2일반산업단지는 2016년까지 총 914억원의 예산으로 성주읍 학산리·금산리 일원 949,787㎡의 부지에 조성 중이며, 이번 MOU 체결로 총 9개사 3,138억원의 투자유치로 610명의 신규 인력을 고용,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 문경·청송에 리조트 유치

특산물 판매 증가 등 지역경기 활성화 기대

경상북도와 문경시는 4월 17일 문경시청에서 이인선 정무부지사, 고윤환 문경시장, 이규표 일성레저산업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일성문경리조트' 투자유치를 위한 MOU를 체결, 일성레저산업(주)는 931억원을 투입해 문경새재 제1관문 주휴관 입구에 콘도 230실, 아쿠아&스파, 야외공연장 등을 갖춘 종합휴양레저시설을 2017년까지 건립할 계획이다.

또한 3월 27일에는 서울 동대문구 소재 청송군서울센터에서 이인선 정무부지사, 한동수 청송군수, 박홍석 대명그룹 총괄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청송주왕산관광지 조성사업의 관광·레저시설 건립 및 운영에 따른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 대명그룹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200억원을 투입, 청송군 부동면 소재 주왕산 관광지내 77,000㎡ 규모 부지에 콘도 24동 409실, 아웃도어 스파, 체험농장 등 관광·레저·휴양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도청신도시에 글로벌 기업 스탠포드호텔 유치 MOU 체결

한옥형 호텔 신규건립 위해 300억원 투자

경상북도는 3월 17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김관용 도지사, 권영세 안동시장, 권중갑 스탠포드호텔그룹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도청신도시에 한옥형 호텔 신규건립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미국 뉴욕 맨하탄에 본사를 두고 미국 뉴욕 맨하탄, 칠레 산티아고, 파나마 파나마시티, 한국 서울 상암동 등 총 4개의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스탠포드호텔그룹은 도청신도시에 향후 5년 이내 총 투자비 300억원을 투자해 1단계로 객실 100개 규모의 한옥형 호텔 및 컨벤션센터 건립을 시작으로 투자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경상북도, 동아쏘시오그룹과 투자양해각서 체결

동아쏘시오그룹 연수원 상주시 은척면 무릉리에 건립

경상북도는 3월 18일 상주시청에서 김관용 도지사, 성백영 상주시장, 강신호 동아쏘시오그룹 회장,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동아쏘시오그룹 연수원 건립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경상북도와 상주시는 동아제약 창업자 고(故) 강중희 회장과 강신호 회장의 고향인 상주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2015년까지 200억원을 투자하는 동아쏘시오그룹 연수원을 고향마을인 은척면 무릉리에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루미너스코리아, (주)엔피케이 구미투자 잇달아

구미에 자동차부품 강소기업 속속 입주

구미부품소재전용산업단지에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 투자 및 기존 기업의 투자확대가 이어지고 있다.

경상북도는 구미시와 공동으로 5월 8일 구미시청에서 이인선 정무부지사, 최종원 구미시장 권한대행, 최상건 (주)엔피케이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일본계 외국인투자기업인 (주)엔피케이(NPK)와 구미부품소재전용산업단지 내에 신규 생산공장 설립을 위해 183억원을 투자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또한 4월 24일에는 구미시청에서 이인선 정무부지사와 최종원 구미시장 권한대행, 다국적 자동차부품업체인 루미너스코리아의 예구치 요(江口 洋) 대표이사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부품소재전용산업단지에 신규이전공장 건립을 위해 외국인직접투자 5백만불 포함 총 100억원 규모를 투자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현안사업 국비예산 확보 위해 국회와 적극 공조

중앙부처 찾아 주요 현안사업 직접 설명·건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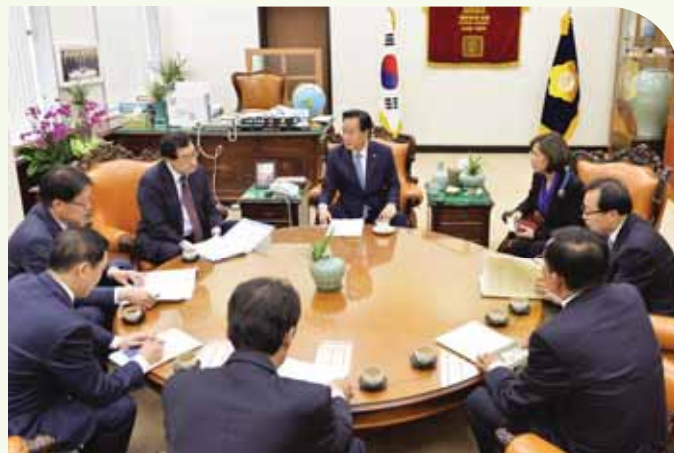
경상북도는 국회,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해 주요 현안사업을 건의하는 등 내년도 국비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다.

지난 5월 13일 경상북도지사 권한대행 주낙영 행정부지사는 도 간부공무원들과 함께 지역 국회의원실을 전격방문, 경북도의 현안사업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저녁에는 지역국회의원 선임 보좌관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5월 8일에는 이인선 정무부지사가 직접 기획재정부를 방문, 송언석 예산총괄심의관, 박춘섭 경제예산심의관을 면담하고 국토교통예산과, 연구개발예산과 등을 방문하여 내년도 경북지역 현안사업을 설명하며 국비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이인선 정무부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실장, 교육부 지역대학실장,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도 각각 찾아가 각 부처의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경북도 관련 주요사업에 대한 협조를 당부, 긍정적인 공감을 얻어 내기도 했다.

이는 정부 각 부처가 6월 13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기획재정부 제출을 앞두고 있어 경북도의 주요 사업을 정부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과 적극 공조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국비예산을 반드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경상북도에서는 내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를 위해 올해 2월초부터 부지사를 본 부장으로 하고, 실·국장을 반장으로 국가 투자예산 전담 'B15-T/F팀' (12개반 68명)을 가동, 수차례 보고회를 개최해 왔으며, 지난 4월말 최종 보고회에서 지난해 건의액을 상회하는 7조 3천억원 규모의 국가투자 지원 건의사업을 확정된 바 있다.

대한민국 1등 농도(農道) 위상 다시 한 번 확인

농업소득 압도적 1위, 타 지자체 비해 최고 2배 가까이 높아

경상북도의 농업소득이 전국에서 압도적인 1위로 나타나 대한민국 제1의 농도(農道)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는 4월 24일 통계청의 '2013년 농가 경제조사' 발표에 따른 것으로, 경북도의 농가소득이 2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상북도의 2013년 농가당 평균소득은 2011년 2천 658만7천원에 비해서는 무려 31%, 2012년 3천173만9천원보다는 10% 더 증가한 3천489만4천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 번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농가소득 중 순수 영농활동에 따라 창출되는 가구당 농업소득은 압도적이다. 2013년 농업소득은 1천422만6천원으로 전국 평균 1천3만5천원 보다



42%, 타 지자체와 비교할 때 최고 2배 가까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가구당 농가부채는 지

난 해 2천183만1천원보다 416만원 감소한 1천767만1천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최저 수준으로, '소득은 높고 빚은 줄어든' 건전한 재무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농가부채액 2천736만 3천원 보다 약 1천만원이 적은 금액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과수, 원예, 특작 등 고소득 작물 재배 농가가 많다는 것도 주요한 요인 이지만, '함께 잘 사는 농촌'이라는 정책비전을 세우고 농가소득의 상향평준화를 목표로 (재)경북농민사 관학교를 통해 농가의 기술·경영 수준 향상, 지속적인 소득원 발굴과 확충,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농어촌 진흥기금 조성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어우러져 이번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경북도는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시장개방, 경영비 상승, 소비위축, 기상재해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들 녀를 지키며 구슬땀을 쏟아 부은 농업인들의 노고가가장 큰 요인이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김주령 경북도 농업정책과장은 "농가소득 증대는 정책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다. 농업에서 희망을 찾고, 농촌에서 성공 스토리를 쓸 수 있도록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농어가 경제조사는 경제사회 변천에 따른 농어가 경제 동향과 농어업 경영 실태를 파악해 정책 수립과 경영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등을 목적으로 통계청에서 통계법에 근거해 매년 실시한다.

전국 귀농인구 줄어도 경북은 오히려 증가

지난해 2,087가구 경북으로 귀농, 전국 19.1% 차지

경상북도의 귀농 인구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이 합동으로 실시한 2013년 귀농 통계조사 결과 또다시 전국 1위를 차지, 통계조사가 시작된 2004년부터 10년 연속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켰다.

전국의 귀농가구는 전년도 대비 2.7% 감소했으나, 경북은 오히려 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그 인기를 실감케 하고 있다.

시·도별로는 경북 2,087가구, 전남 1,825가구, 경남 1,348가구, 전북 1,211가구 순이며, 시·군별로는 상주 184가구, 영천 137가구, 의성 132가구, 청도 129가구, 김천 128가구 순으로 귀농가구가 많았다.

경북으로 귀농한 가구의 연령대를 분석해보면 50대가 39.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40대 23.2%, 60대 21.4%, 30대 이하 10.9%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30~50대가 80%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고령화·저출산에 목말라 있는 우리 농촌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전망이다.

또한, 귀농 전 거주지역은 대구 600가구(28.7%), 경북 433가구(20.7%), 서울 274가구(13.1%), 경기 266가구(12.7%) 순으로 많았다.

경북이 전국에서 귀농가구가 가장 많은 이유는 첫째, 경북이 전국에서 역대농가가 가장 많고, 농업소득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둘째, 타 시·도보다 저렴한 토지가격을 들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귀농 정착자금 지원과 같이 도 차원의 체계적이고 다양한 귀농프로그램 운영 등 3박자가 어우러져 일궈낸 노력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경북도는 귀농·귀촌인의 적극적 유입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귀농·귀촌인 지원조례를 제정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상주 등 시·군 귀농전담팀 구성, 경북농업명장 현장순회 교육과 찾아가는 귀농·귀촌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단계별 귀농정착 모델을 개발·시행해 왔다.

경북도 최웅 농축산국장은 “올해에는 전국 최초로 거주와 실습이 가능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가 영주시에 개소되고,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7개소 운영 등 다양한 국책사업 유치로 예비 귀농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귀농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전국 최초 귀농귀촌인 농촌 재능기부사업도 본격 추진

한편 경상북도는 (사)경상북도 귀농연합회와 공동으로 전국 최초 귀농·귀촌인 농촌 재능기부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는 귀농·귀촌인이 농업에 종사하기 전에 익힌 전문기술과 경험을 살려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기존 지역민들과 화합·상생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귀농·귀촌인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다는 취지이다.

경북도는 지난 3월초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사회취약층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3개 시·군 14세대를 선정, 지난 5월 13일 청송군 현서면을 시작으로 영천시 청통면 등 3개 면 지역, 의성군 신평면 등에서 도배·장판교체·집수리 등 재능기부 활동을 펼쳤다.

(사)경상북도 귀농연합회는 분야별 전문기술을 보유한 회원들의 참여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도에서는 재능기부사업에 필요한 순수 재료구입비를 지원한다.



경북도에는 2012년 광역단위 전국 최초로 민간자생단체인 경상북도 귀농연합회(14개 시·군 4,400여명)가 발족, 중앙단위 귀농귀촌박람회 등 홍보행사에 상담자로 참가하는 등 선배 귀농인으로서의 멘토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귀농·귀촌사업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한동군 (사)경상북도 귀농연합회장은 “귀농·귀촌인은 기존 농업인과 동반 상생하는 협력자다. 앞으로도 귀농·귀촌인들이 익힌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농촌에 환원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경북도, 영주시에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

본격 귀농 앞서 농사 실습 및 체험 등 원스톱 지원

“귀농을 계획 중이세요? 그럼 먼저 살아보고 귀농하세요!”

도시생활의 편리함을 버리고 조금은 불편한 전원에서의 생활을 꿈꾸며 귀농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도시생활에 익숙한 이들이 농촌으로 이주하는 것은 녹록치 않은 문제이다. 그런데 농촌에서 살아보고 귀농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경상북도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유치한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가 올해 하반기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지난 4월초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거쳐 건립추진 중인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는 국비 40억원 등 총사업비 80억원을 투자, 도시민 등 귀농 실행 단계에 있는 예비 귀농인들이 일정

기간 가족과 함께 체류하면서 농촌을 이해하고 적응하며, 각종 농사 실습 및 체험을 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센터이다.

영주시 아지동 일대 30,000㎡의 부지에 1인가구형 18세대 1동, 2인 이상 가구형 6세대 2동 등 체류형 주택 3동과 세대별 텃밭 30개소, 실습농장,

시설하우스, 교육시설 등을 올해 말까지 갖출 예정이다.

센터가 완공되면 도내 주요 농·특산물 생산 농민들과 연계해 최적의 실습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예비 귀농인들의 수익성까지 고려해 다양한 작물 경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방향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의 귀농가구를 살펴보면 2012년 11,220가구에서 2013년에는 10,923가구로 2.7% 감소하였으나, 경북은 2,080가구에서 2,087가구로 오히려 0.2% 증가, 10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해 귀농 1번지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경북도에서 귀농인의 적극적 유입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귀농인 지원조례를 제정해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도내 시·군의 귀농전담팀 구성·운영, 도시민 대상 찾아가는 귀농·귀촌 설명회 개최 등 단계별 귀농정착 모델 개발을 통해 예비 귀농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경북도에서는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가 경북의 대표적 귀농인 중점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귀농1번지’ 명성을 이어나갈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053-950-2613

경북도, 어업창업 지원 등 ‘귀어·귀촌 창업 지원사업’ 추진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 전년대비 대폭 증가

경상북도 어업기술센터는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어업창업 및 주거 공간마련 등을 지원, 유능한 수산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귀어·귀촌 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해 귀어창업 희망자가 4명에 그쳤던 것이 ‘경상북도 귀어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과 창업자들의 성공사례가 알려지면서 올해에는 이미 15명이 신청했다. 경북도는 올해 이들에게 사업자금 34억8천만원(귀어창업 30억원, 주택구입 4억8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해 귀어 창업한 임창순(울진군 기성면 구산리, 51세)씨는 2억원을 지원받아 최신행 낚시전용어

선(선명 : 왕돌의 전설호, 5.99톤급)을 건조해 인터넷을 통한 예약 등으로 연 1억원 이상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 또한 구산리마을 경조사를 살뜰히 챙기고, 연세 많으신 이웃의 그물 손질을 돕는 등 자연스럽게 주민들과 동화되어 청송이 자라할 뿐만 아니라 귀어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멘토’를 자처, ‘귀어·귀촌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많은 귀어인들이 오징어가공, 대게자망 어업, 정치망어업 등 다양한 형태로 어촌에 성공적으로 정착, 귀어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어 앞으로 귀어창업사업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귀어 어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지원대상** : 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 3%,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대출한도**
 - 어업 창업자금 : 세대당 2억원 한도 이내
 - 어가주택 구입 및 신축자금 : 세대당 4천만원 한도 이내

▶ 문의 : 경북어업기술센터 영덕지소 054-734-5451

독도지킴이 최선봉장, 경상북도 독도재단!

안용복재단 → 독도재단 명칭 변경, 독도수호 활동 강화

홀로 독(獨), 섬 도(島), 독도, 그 곳에는 사람도 살고 새도 난다. 한결같은 무게로 언제나 그 자리를 홀로 지켜온 땅, 독도!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 뭉클한 우리 땅 독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 독도는 결코 외롭지 않다.

경상북도 독도재단! 독도순회교육 연간 20회 3천여 명, 독도자료 사진전 연간 15회 5만여 명, 대한민국 독도문화대전, 안용복예술제, 창작뮤지컬, 청소년 바다학교 개최, 경북지역을 비롯해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까지 직접 찾아가는 독도순회교육과 독도홍보활동을 통해 독도수호에 앞장서고 있는 곳이다.

2009년 경상북도 출연기관으로 출범해 올해로 5주년을 맞이한 독도재단은 지난 4월 21일 경북도의회를 통과한 명칭변경 조례안이 공포된 이후, 이사회 의결과 정관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5월 15일 정식으로 안용복재단에서 독도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명칭 변경과 함께 내부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재단의 미션과 비전을 재정립하였으며,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독도수호활동을 강화해 나갈 기반을 마련하였다.

독도재단은 '최고 수준의 교육, 홍보, 문화 및 연구, 네트워킹을 통한 민간차원의 독도수호 HUB 구현과 영토 문화주권 강화'라는 미션을 도출해 냈으며, '세계인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섬, 독도'를 제대로 알리고 지켜 나가기 위해 '독도 수호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참 봉사(Devotion)'하며, '독도관련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성 추구(Professionalism)'로 '독도 민간기관의 선도자로서 주도적인 활동 전개(Leadership)'할 것을 경영방침으로 정해 오늘도 독도지킴이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독도재단의 주요 사업으로는 △일반 국민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와 지식을 전달하는 찾아가는 독도교육프로그램 △국내·외 오피니언 리더, 해외 한인학교 교사, 중소기업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독도탐방프로그램 △국내외의 주요 행사장과 다중 밀집 장소에 직접 찾아가는 독도순회자료

전을 비롯한 다양한 독도홍보프로그램 △독도수호에 있어서 선제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을 펼쳐 나가기 위한 독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독도연구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올해는 명칭을 변경한 첫 해로서 어느 해보다도 독도수호의 의지와 역량을 강화하고자 오는 10월 독도의 달을 기념해 등록지를 독도로 두고 있는 국민 3천여 명을 대상으로 '독도등록지 국민! 독도사랑 진진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 제공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일체감을 가지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로 5회째로 접어드는 '안용복예술제'도 가칭 '독도문화예술제'로 명칭을 바꾸고 독도와 인접한 포항에서 '독도사랑 진진대회'와 함께 대규모로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 홍보 못지않게 국외 홍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 따라 해외 오피니언 리더와 한인학교 교사를 초청해 독도탐방을 실시하고, 별도로 선발된 해외 한인학교에 대해서는 직접 '찾아가는 독도교육'을 가짐으로써 현지인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독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역사를 알리고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독도순회교육'과 '독도순회자료전'도 매년 15회 이상 개최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청소년 교육으로 경북도교육청과 함께 △독도플래시몹 △독도카드섹션 △독도 도미노 만들기 △독도티셔츠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특강과 함께 병행하고 있다.

또한 교육 대상을 일반인에게까지 확대해 교육 후 독도를 배경으로 즉석 사진을 촬영해줌으로써 참석자들로부터 "독도에 대한 미처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독도에 대해 더욱더 애정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점차 노골화되고 있는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에 맞서 민간차원에서 독도수호 사업을 통해 독도영유권 강화의 최선봉에서 선도자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독도재단은 1차 2팀의 소수 정예요원들로 구성, 독도수호에 대한 사명감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독도수호의 최선봉에서 오늘도 동해 앞바다 동쪽 끝에 홀로 서있는 민족의 정신이 깃든 독도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그 소임을 다하고 있다.



경상북도 청사내 '독도홍보관' 새 단장

의성초등학교 등 도내 6개 초등학교 어린이 손님 첫 방문

경상북도는 청사내 '독도홍보관'을 새롭게 단장하고 4월 8일 의성초등학교 등 도내 6개 초등학교 어린이 150여명을 첫 관람객으로 맞이했다.

이날 어린이 방문객들은 독도홍보관 및 자료전을 관람하고, 독도에게 전하는 소망메시지 띄우기, 독도 플래시몹, 독도 OX퀴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독도에 대한 역사인식을 새롭게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독도홍보관은 30㎡ 정도 규모로 내부는 독도 실시간 영상 모니터, 독도의 현황과 연혁, 독도 모형 및 고지도 등으로 꾸미고, 외부 공간은 독도를 배경으로 푸른 바다와 하늘, 흰구름 사이로 팽이 갈매기가 날고 있는 모습을 담은 포토존을 설치했다.



도립교향악단·스페인 톨로사 시립 치스투 앙상블팀 독도평화 음악회 개최



경상북도 도립교향악단과 스페인 톨로사 시립 치스투 앙상블팀이 함께 3월 15일 독도와 울릉군에서, 또 3월 21일에는 구미시 문화예술회관에서 각각 '독도평화 음악회'를 개최, 음악을 통해 우호증진을 다짐하며 우리 땅 독도사랑 운동에 동참했다. 이번 스페인 음악가와의 협연은 스페인 출신 우나이 우레초(Unai Urrecho) 수원 대학교 음악대학 교수의 주선으로 이루어졌다.



해설사와 함께 하는 옛길 걷기, 10월까지 운영

경상북도는 올해도 '영남 옛길 답사프로그램'을 10월까지 진행한다.

'영남 옛길 답사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생태적 가치, 또 문화·역사적 배경을 갖춘 경북도내 옛길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운영한 이래 전국적인 각광을 받고 있다.

올해는 10월까지 도내 옛길 5개소를 답사할 계획으로, 4월 고령 예던길을 시작으로 5월에는 영주 소백산 자락길 답사를 이미 진행하였으며, 6월 안동 퇴계오솔길, 9월 문경새재 과거길, 10월에 울진 십이령길을 찾아간다.

무엇보다 풍부한 지식을 갖춘 생태 및 역사문화 해설사가 함께 하여 재치 있는 입담으로 옛길에 서려있는 문화와 역사, 자연생태 등을 설명, 참가자들의 이해를 돕고 답사여행의 흥미를 돋워준다.

답사 희망자는 경북자연사랑연합회 홈페이지(<http://www.greentopia.or.kr>)에서 신청하면 되고, 매달 마지막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접수하며, 참가비는 1인당 1만원이다.

| 영남 옛길 답사 신청 |

어디서 : 경북자연사랑연합회 홈페이지(<http://www.greentopia.or.kr>)

언 제 : 매달 마지막 주 월요일(오전 10:00부터 선착순 접수)

문 의 : ☎ 054)457-4572

답사 일정	옛길	코스특징	
6월	안동퇴계 오솔길	- 퇴계선생이 즐겨 다니시던 도산서원에서 청량산까지 낙동강을 따라 이어지는 길 -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퇴계선생의 시적 감흥을 느낄 수 있는 길 ※도산서원-도산9곡-청량산(8km)	
9월	문경새재	- 예전 과거보던 선비들이 통과하던 길 - 조령 3관문에서 KBS촬영장을 거쳐 조곡천과 조령천을 따라 유곡을 거쳐 공평3리에 이르는 역사문화길 ※관음리~미륵사지(10km)	
10월	울진 십이령	- 조선시대 부보상들이 울진과 봉화를 오가며 물물교환을 하던 교역 길로서 12고개가 있다하여 십이령길 - 아름답고 정취가 있는 울창한 숲길 ※두천리-왕피리(8km)	

울릉도·독도 이어 전국 네 번째로 청송 국가지질공원 인증

수려한 경관과 역사·문화·생태·고고학적 가치 탁월

경상북도는 보존가치가 뛰어난 지질자원 및 생태환경을 활용한 국가 지질공원 등재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31일 환경부 국가지질공원 위원회에서 청송 지역 17개 지질명소가 울릉도·독도 지질공원에 이어 도내에서 두 번째, 전국 네 번째로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 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에 인증된 청송 국가지질공원은 수려한 경관과 역사·문화·생태·고고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으로 선캄브리아기부

터 신생대까지 화강암, 퇴적암, 변성암 등이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이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기암, 꽃돌, 페페라이트, 폭포 등 보기드문 특징들이 다양하게 산재해 있다.

지질공원은 주왕산지구 13개소(113.26km²)와 신성지구 4개소(38.08km²)로 총 17개소(151.34km²)로 청송군 5개 읍·면(청송읍, 부동, 진보, 안덕, 부남면)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청송 구과상 유문암은 구과상 조직들이 꽃처럼 아름답다고 해 ‘꽃돌’이라 불리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높은 가치를 평가 받고 있다. 여름철 기온이 32℃가 넘어가면 얼음이 얼고 매년 아이스클라이밍대회가 개최되어 관광명소로 각광받는 청송 얼음골 등 주왕산지구에 13개소가 있다.

신성지구는 희고 반짝이는 퇴적암들이 유수에 의해 마식되어 다양한 구조들이 발달되어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백석탄과 신성리에 분포하는 백악기 사곡층에 용각류와 수각류의 공룡발자국 등 4개소가 있다.

청송지질공원

주왕산지구 13개소

총 면적 : 113.26km² (주왕산지구 113.26km², 신성지구 38.08km²)
면적 : 151.34km² (국가지질공원 면적)
지질명소 : 17개소
- 화강암 : 화강암류 (화강암, 화강섬암, 화강대암, 화강정암, 화강편암, 화강암류)
- 퇴적암 : 퇴적암류 (퇴적암, 퇴적암류, 퇴적암류, 퇴적암류, 퇴적암류, 퇴적암류)
- 변성암 : 변성암류 (변성암, 변성암류, 변성암류, 변성암류, 변성암류, 변성암류)
- 화강암 : 화강암류 (화강암, 화강섬암, 화강대암, 화강정암, 화강편암, 화강암류)
- 퇴적암 : 퇴적암류 (퇴적암, 퇴적암류, 퇴적암류, 퇴적암류, 퇴적암류, 퇴적암류)
- 변성암 : 변성암류 (변성암, 변성암류, 변성암류, 변성암류, 변성암류, 변성암류)
- 화강암 : 화강암류 (화강암, 화강섬암, 화강대암, 화강정암, 화강편암, 화강암류)
- 퇴적암 : 퇴적암류 (퇴적암, 퇴적암류, 퇴적암류, 퇴적암류, 퇴적암류, 퇴적암류)
- 변성암 : 변성암류 (변성암, 변성암류, 변성암류, 변성암류, 변성암류, 변성암류)



국가 지질공원(Geopark)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이를 보전하고 교육, 관광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월 29일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환경부에서는 2017년까지 전국에 국가지질공원 16개소를 인증할 계획으로 최근까지 전국 3개소(울릉도·독도, 제주도, 부산)가 등재되었으며, 전국 7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질공원 등재를 추진 중에 있다. 유네스코가 후원하고 세계지질공원망(GGN)에서 인증하는 세계지질공원은 30개국 100여개소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제주도가 유일하게 등재 되어 있다.

한편 경북도는 천혜의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포항, 경주, 영덕, 울진 등 동해안 지역에 대해 내년까지 국가지질공원 등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동해안 지역은 25억년 신비를 간직한 희귀암석과 화석산지, 신생대지층, 특히 문화재청이 지정한 경주의 주상절리, 울진 성류굴, 왕피천 계곡 등 풍부한 지질자원이 분포되어 있어 타당성 용역을 통해 25개소의 지질명소를 선정했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지질공원 관리 운영을 위해 경상북도 지질공원관리 조례를 제정했으며, 12월에는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상북도 지질공원 운영위원회를 구성, 앞으로 지질명소에 대한 학술적인 가치규명과 지질공원 추진방안 등을 위한 용역을 차질없이 마무리 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프로그램개발, 해설사 양성, 탐방센터건설 등 기반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꽃돌

크루즈선 타고 신나는 포항운하 여행 떠나자!

40년 막혔던

형산강과 포항구항

물길 뚫려...

이젠 해양관광도시다!

세계로 향하는 경북의 환동해권 중심해양도시 포항에 또 다른 명소가 생겼다.

‘포항운하’, 포항의 젓줄 형산강에서 송도교 인근 동빈내항까지 40년 동안 막혔던 물길이 시원하게 열렸다. 그동안 산업화의 물결 따라 1.3km 구간을 막아 북개천이 되어 물길이 통하지 않자 오염물이 쌓여 썩어가며 악취를 풍기던 곳이 푸른 물결 출렁이는 ‘포항운하’로 재탄생한 것이다.

동빈내항은 신라시대 초기부터 고기잡이배가 드나드는 천혜의 항구로 경북 동해안 어업과 물자교역의 중심창구 역할을 했다. 그런데 포항제철이 들어서면서 형산강 하천직선화공사가 이루어져 물길이 막히게 되었다. 이후 포항구항이 되어버린 동빈내항 물길 복원은 포항시민의 숙원사업이었다.

지난 해 11월 2일 포항운하 통수식이 열리는 날, 포항시민들의 가슴은 뭉클했다. 통수식을 보기 위해 행사장에 나온 포항시민들은 가정에서 가져온 물로 합수식을 하고, 테이프 커팅을 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기념식전에는 화려한 수상 퍼레이드도 펼쳐졌다. 생명의 물길 위로 헬리콥터가 축하비행을 하고, 바지선을 탄 풍물패의 신나는 뿔소리 소리가 물길 따라 흘렀다. 옛 모습을 재현한 뗏목과 어선이 시민들의 환호 속에서 운행되기도 하였다.

포항운하는 배를 타고 돌아볼 수 있다. 현재 포항 운하관에서 1.3Km의 운하를 지나 송도해수욕장을 돌아오는 45인승의 연오랑호 한 척과 15인승·22인승의 리버 크루즈 5척이 운항되고 있다. 포항시민들은 물론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평일·휴일 할 것 없이 크루즈를 타기 위해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배는 죽도시장을 지나 포항합 체험관, 여객선 터미널 앞을 통과한 후 영일만을 지나 되돌아온다. 형산강과 영일만을 돌아가는 뱃전에는 갈매기가 물려들어 관람객들에게 기쁨을 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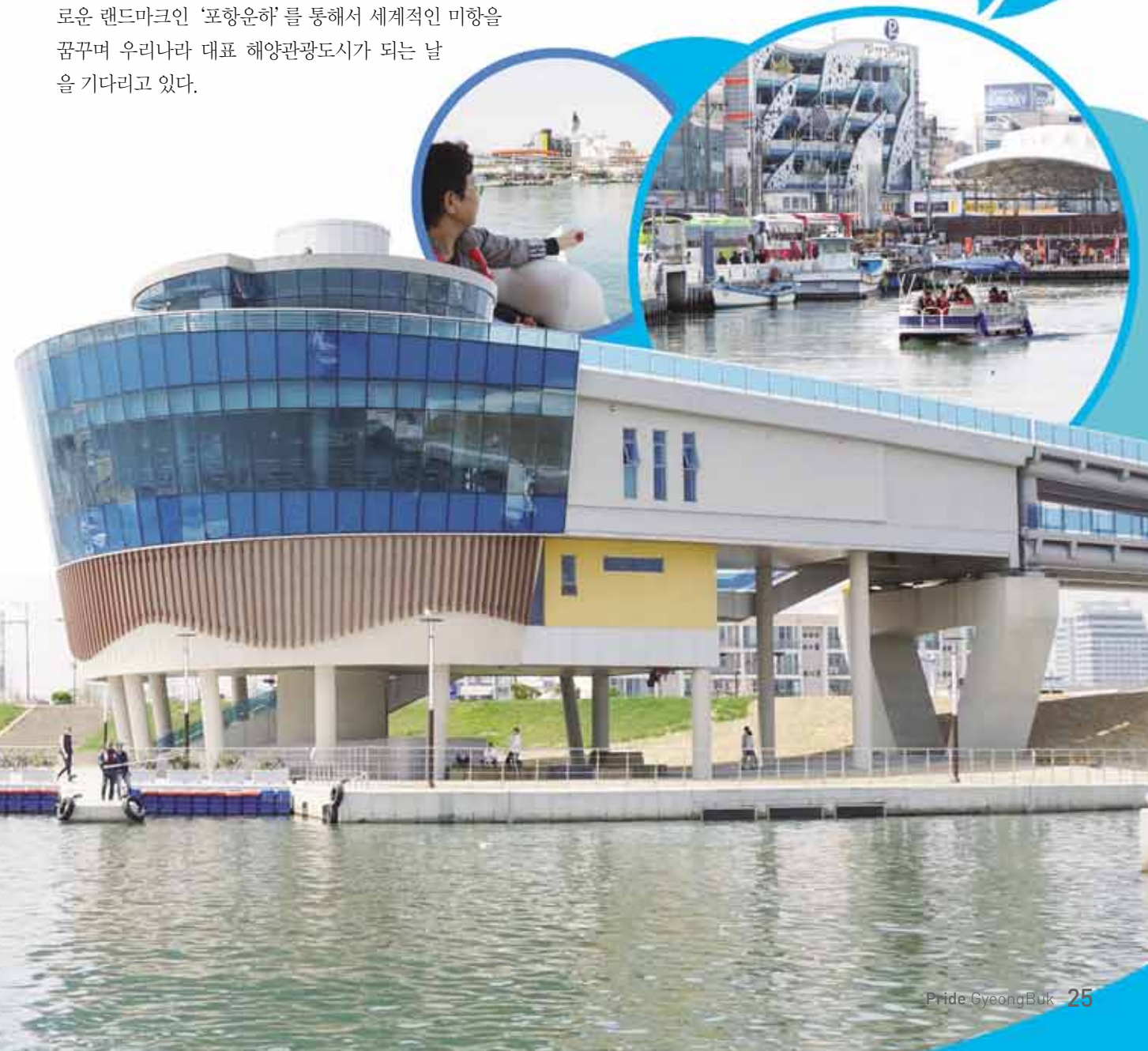
막혔던 물줄기가 트이며 포항운하 주변 송도동·해도동 일대는 수변공원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가볍게 산책하는 사람, 바람을 가르며 자전거 도로를 달리는 바이커들로 활기가 넘친다. 형산강 둔치로 이어지는 꽃길엔 잘 가꾸어놓은 꽃들이 사랑거리다. 관광버스에서 내린 한 무리의 어르신들은 운하관

을 둘러보며 포항의 옛 모습을 추억한다. 노랑 병아리 떼 같은 유치원 아이들도 재잘대며 선착장을 누빈다. 운하관 맞은편엔 포스코의 위용이 드높고 운항을 준비 중인 리버 크루즈의 배들이 여유롭게 흔들린다.

포항운하가 열린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환경변화의 조짐도 보이고 있다. 물길 따라 여유롭게 노니는 물고기들의 모습은 생태환경이 되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40년 전 물길이 막혀 백사장이 유실되어 기능을 잃었던 송도해수욕장도 머지않아 은빛 모래 반짝이는 옛 모습으로 살아나 침체되었던 지역상권도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포항운하와 형산강 일대에는 44인승 크루즈 1척과 16인승 4척이 더 띄워져 시민들과 관광객들을 맞을 계획이다. 특히 내년 KTX가 개통되면 서울-포항간 2시간 시대가 열리고,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들의 접근성도 용이해져 포항운하는 아름다운 포항을 찾는 관광객들을 맞는 길목이 될 것이다.

포항운하 주변에는 호텔과 수상카페, 수변공원과 같은 문화생태공간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아름다운 수변도시로의 변신을 앞두고 있다. 이제 포항은 ‘철강산업도시’라는 이미지를 벗고 새로운 랜드마크인 ‘포항운하’를 통해서 세계적인 미향을 꿈꾸며 우리나라 대표 해양관광도시가 되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





'들락날락 내성장', 옛 명성 되찾는다

현대화와 문화의 옷 입고 새 출발하는 봉화상설시장

100여년 역사의 전통 5일장인 봉화상설시장은 경북 봉화군 봉화읍 중심부에 위치, 인근에 내성천이 있어 지역민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다. 매년 여름에는 은어축제, 가을에는 송이축제가 열려 관광객들도 많이 방문하는 봉화 최대 규모의 시장이다.



원래 내성장으로 불렸으나, 장터가 있는 내성면이 1956년에 봉화면으로 개명되면서부터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당시만 해도 내성장은 비록 산골에 있지만 '들락날락 내성장'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경기가 제법 좋았다.

영동선 철도가 뚫리기 전에는 영월, 삼척, 태백, 울진, 안동, 예천 등 강원도와 경북 북부에서 찾아온 장꾼들이 500명이 넘는 정도였으나 1980년대 100명이 채 안될 정도로 줄었다.

이후 시장 주변으로 중형마트가, 인근 영주시에 대형마트가 들어서자 점차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졌다. 이에 봉화군과 상인들이 힘을 모아 시설을 현대화하고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옛 명성을 조금씩 되찾고 있다.

2, 7일 열리는 장날에는 산간 오지에서 거둬온 산나물, 고추, 참깨, 송이, 잡곡류, 한약우 등 싱싱한 농산물과 임산물이 계절마다 나온다.

봉화상설시장의 장날이면 상인도 점포도 2배로 늘어난다. 기존 점포 수 만큼의 난전이 자리를 펴기 때문이다. 이상할 것도 없다. 알뜰살뜰 가꾼 소소한 먹을거리라도 가지고 나와 파는 것이 우리네 전통장날의 풍경인 까닭이다.

또 시장 한구석에서는 인심 좋고 정 많은 시장 상인들이 넉넉히 기름을 두른 프라이팬에 부침을 척척 부쳐내고, 탁배기도 한 사발 내어 온다. 파는 건지 그냥 나눠먹는 건지 알 수 없는 먹자판을 냈 놓고 바라보고 있으면 “뭐하니껴? 이거나 먹어보소 고마~” 하는 상인의 목소리와 함께 어느새 입안엔 부침개 한 점이 물려져 있다. 허물없는 정겨운 모습이다.

경북에서도 오지에 속하는 봉화의 시장이지만 손님을 맞이에는 부족함이 없다. 2000년대 두 차례에 걸쳐 완료된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시장 전체에 아케이드가 설치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편안하게 장을 볼 수 있다.



시장입구에 공공화장실을 짓고, 250여대의 주차가 가능한 공영주차장도 마련했다. 공영주차장 외에도 인근 내성천의 덕에 500여대의 주차가 가능하다.

봉화상설시장 고객 대부분이 봉화군민이다. 이에 봉화군에서는 타 지역의 시장이나 대형마트의 고객 유출을 막기 위해 버스요금을 낮췄다. 봉화군 어디에서 버스를 타도 왕복요금 2,400원만 내면 된다. 봉화군민들이 굳이 높은 시외버스 요금을 들여 타 지역 시장으로 가지 않고 연중 봉화상설시장을 이용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아울러 '들락날락 봉화시장'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2010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문전성시 프로젝트 시범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살리기 운동을 펼쳐 시장에 문화의 색을 입혔다.

2012년 사업이 완료됐지만 지금도 시장 곳곳에선 각종 문화행사와 공연이 수시로 펼쳐진다. 시설현대화와 문화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지개를 활짝 편 것이다.

지난해 7월에는 내성천과 봉화상설시장을 잇는 터널 및 전망대, 송이와 은어조형물이 설치됐다. 터널이 준공됨으로써 은어축제와 송이축제 시 관광객들에게는 시장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고, 시장에는 경기활성화와 주차난 해소, 지역민들에게는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를 준다. 봉화상설시장 상인회에서 시장경기 활성화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 건의한 사업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최근 봉화상설시장에는 또 다른 변화가 생기고 있다. 시장과 내성천 사이 슬레이트 주택지를 매입해 대규모 먹거리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330㎡(100평) 규모의 먹거리센터가 조성되면 대형 한약우 전문유통단지과 식당을 비롯해 산야초, 장독 뚝배기 등 봉화의 특산물을 활용한 음식을 한 곳에서 맛 볼 수 있다.

▶ 경상북도 인터넷신문 프라이드뉴스 김희정 기자

신석기시대부터 현재까지... 청도 역사·문화 한 자리에 청도군 첫 종합박물관 지난 해 12월 개관



경북 청도하면 ‘감’이 먼저 떠오른다. 씨 없는 감 ‘청도 반시’의 고장이다. 이런 청도 감으로 만든 ‘감와인’은 국내외 와인전문가들에게도 인정받았다. 천년고찰인 ‘운문사’가 있고, 청정하고 수려한 자연풍광으로 유명한 계곡, 또 전국적으로 이름난 ‘청도 소싸움’은 전용경기장을 마련해 많은 관광객들이 청도를 찾아오게 한다.

이 곳 청도에 첫 종합박물관이 생겼다. 지난 해 12월 14일 개관한 청도박물관, 그 동안 청도에서 발굴된 각종 유물이 전시가 가능한 박물관이 없어 지역을 떠나 있던 것을 지역주민들이 늘 가까이에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성되었다. 지난 4월 말에는 경북도내 상주자연거박물관, 영주인삼박물관과 함께 전문박물관으로 등록되었다.

대구 달성군에서 청도군 이서면으로 통하는 팔조령 터널을 지나면 이서면 양원리 도로가에 지금은 폐교한 옛 칠곡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한 청도박물관을 만날 수 있다.

66억원(국비 18억원, 도비 8억원, 군비 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청도군의 역사를 한 눈에 조명할 수 있는 고고역사관, 청도의 전통생활문화와 민속을 알 수 있도록 청도 사람들의 기증·기탁 유물을 전시한 민속관, 청도군의 관광과 산업, 인물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청도알림이센터 등으로 구성하고, 전시공간과 체험실, 뮤지엄샵, 야외공원, 유물수장고 등을 갖췄다.

이 중 고고역사관에서는 청도에 처음 사람이 모여 살기 시작한 신석기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다. 국내에서 발굴된 석검 가운데 최대 크기라는 진라리 출토 석검(길이 67cm)과 대전리에서 출토된 토광묘의 청동거울, 청동순가락, 고려시대 청자병 등 청도에서 발굴된 유물 370여 점을 구경할 수 있다.

박물관 앞마당은 옛 초등학교 운동장에 잔디를 깔아 마음껏 뛰어놀아도 안전하다. 또한 다양한 기획전시와 체험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청도문화의 진수를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어린이 방문객들과 함께 하는 ‘폐지를 활용한 재생종이 만들기’, ‘종이딱지 접기와 딱지치기 놀이’ 등 폐지 활용 체험프로그램을 마련, 인기를 끌기도 했다.

청도박물관은 개관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입소문을 타고 평일 3~400여명, 주말이면 7~800여명이 찾는다고 한다. 청도박물관과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지역의 박물관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 관람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 관람료 : 무료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 문의 : 054-370-2281



경북도, 문화융성 이끌 특색 있는 전문박물관 등록

경상북도는 상주자연거박물관, 청도박물관, 영주인삼박물관 등 도내 공립박물관 3개소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거 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했다.

상주자연거박물관은 2010년 개관, 낙동강 자전거도로를 중심으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도남서원, 경천대, 경천섬 등 주변의 다양한 문화관광자원과 더불어 보고, 듣고, 체험을 겸한 레포츠문화관광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으며, 영주인삼박물관은 국내 최초 재배삼의 효시인 풍기읍에 2013년 개관, 죽령옛길을 형상화해 인삼 재배의 역사적 배경과 풍기인삼조합을 통한 인삼의 상업적 변천과정을 재미있는 전설과 영상으로 풀어내고 있다.

이웃사랑 칭송 자자한 영천임고우체국 이달환 집배원

‘손주처럼 아들처럼...’ 23년간 근무하면서 독거노인 돌봐

“고맙니데이~ 참말로 고맙니데이...”

경북 영천시 임고면 양학리에 거주하는 박학이(85) 할머니가 자신을 집을 찾아온 우체국 집배원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

이 집을 찾은 집배원은 경북지방우정청 영천임고우체국에서 근무하는 이달환(54) 집배원.

박 할머니는 이씨의 손을 잡고 방안으로 끌어 들이면서 “항상 고맙니데이... 매번 이렇게 돌봐줘서, 우째 알고 이렇게 내가 필요한 것들을 꼭꼭 챙겨주는지.. 진짜 고맙니데이”라고 말했다.

“내가 가진 게 없어 줄진 없고... 내가 직접 담근 술이 있는데 그거라도 한잔 해”라며 박 할머니가 술을 꺼내려 하자 이 집배원은 “아이고 할무이, 내가 지금 근무 중이라 운전을 해야 합니다. 술을 마시면 절대 안돼요. 할무이 집에 와서 묵을게요”라며 손사래를 쳤다.

이달환 집배원은 임고면에서 23년간 근무한 베테랑이다. 23년간 임고면에서 근무하다보니 자연스레 주민들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알게 되었다고...

이씨는 “이 곳이 촌이다 보니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다. 그저 오며가며 잘 계시는지 살펴보는 게 전부”라며 “가끔 시간이 되면 잠시 동안 말동무라도 되어드리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씨의 말대로 이게 전부가 아니다. 이씨는 혼자 계시는 독거노인들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집안 곳곳을 잘 살펴본다. 혹여나 필요한 물건은 없나 하고 살펴보는 것.

이씨는 어르신들의 생필품 등을 살펴본 뒤 가끔 선물이라며 건네기도 한다. 이러한 그의 선행으로 임고면에서는 이씨에 대한 칭송이 자자하다.

얼마 전에는 길을 가다 응급환자를 도와 목숨을 구한 적도 있다. 지난 2월 5일 우편물 배달을 하던 이씨는 임고면 사덕로에서 4륜 오토바이가 전복되면서 오토바이에 깔려 피를 흘리고 있던 이모(84) 할머니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구조대가 오기 전까지 응급조치를 한 뒤 가족들에게도 연락을 했다. 인적이 드문 시골길이라 이씨가 빨리 발견하지 못했거나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자칫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다.

구조대가 사고가 난 할머니를 병원으로 옮기는 것을 확인한 뒤 이씨는 할머니의 4륜 오토바이를 집까지 가져다주었다. 혹여 할머니가 나중에 찾을까봐 한 행동이었다.

이씨는 이날 사고에 대해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이날 일은 사고가 난 할머니의 딸 배모씨가 우정사

업본부 홈페이지에 감사의 글을 남기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이씨는 이날 일에 대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닌가요?”라며 되물으면서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일인데..., 다행히 할머니가 무사하셔서 그게 천만다행이다”고 말했다.

이씨는 또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이 봉사활동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내가 내 할 일을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조금 나누었을 뿐인데...”라며 쑥스러워했다.

이달환 집배원은 영천우체국 집배원봉사단인 365봉사단 활동을 통해서도 지역 내 소외이웃들에게 이웃사랑을 펼치고 있다.

▶ 경상북도 인터넷신문 프라이드뉴스 김락현 기자



경북 정체성 결정체 '경북독립운동사' 드디어 완간

총 7권 발간 마무리, 국공립도서관, 대학교, 연구기관 배부

경상북도는 경북인의 독립운동 정신과 그 활동을 집대성한 '경북독립운동사' 7권 발간의 대장정을 마무리, 경북지역 각 시·군 및 국공립도서관, 교육기관, 문화원, 연구기관과 전국 광역시·도, 4년제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배부했다.

• 경북독립운동사 연도별 발간내역 •

연 도	내 용
2011	경북독립운동사 I (의병항쟁) 경북독립운동사 II (애국계몽운동 · 1910년대 국내항일)
2012	경북독립운동사 III (3·1운동) 경북독립운동사 IV (국외지역 항일투쟁)
2014	경북독립운동사 V (1920~40년대 국내 항일투쟁) 경북독립운동사 VI (독립운동가 인물사전) 경북독립운동사 VII (독립운동 사적지)

'경북독립운동사'는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에서 맡아 김희곤 안동대학교 교수(책임연구원), 권대웅 대경대학 교수, 권영배 계명대학교 겸임교수, 강운정 경북독립운동기념관 학예연구부장 등 20명의 전문 연구자들이 집필에 참여, 철저한 사료 조사와 현장 고증 등을 통해 문헌버릴 수도 있었던 소중한 역사를 조명해 경북 독립운동의 내용과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그 가치가 매우 크다.

경북은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발상지이며, 독립유공자가 가장 많은 곳이다. 한국 독립운동사의 시작은 1894년 갑오년에 안동에서 일어난 의병활동이기 때문이다. 또한 독립유공자로 포상한 인원은 지난 해 말 기준 전국 13,403명 중 2,036명으로 15%를 차지해 전국 최고 수준이다. 서울을 비롯한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포상자 수가 대체로 1천명 미만인 것을 감안하면 경북이 갖는 위상을 가히 짐작할 만하다.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053-950-2834



경북도, 정체성 바로 알리기 위해 만화 발간

재미있게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북혼 이야기' 엮어

경상북도는 청소년들이 경북 정체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만화로 엮은 '경북혼 이야기'를 대한민국 대표 만화가 이현세 작가의 감수를 받아 발간했다.

만화 '경북혼 이야기'의 주인공인 창이는 '경북혼은 한국정신의 창'에서, 주인공과 동행하며 하늘을 나는 천마 길이는 '경북인은 길을 여는 사람들'에서 작명하였으며, 주인공인 '창이'가 '길이'라는 천마를 만나 다양한 경북의 정신문화를 여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책에서는 경북의 정신문화로 삼국통일을 이루고 실크로드를 통해 세계와 교역한 신라의 든든한 바탕이 된 화랑정신, 좋은 일은 서로 권하고 잘못을 바로잡으며 어려움을 서로 도우라는 자치규약 '향약'을 통해 사회질서를 바로잡고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선비정신, 국권침탈에 맞선 항일의병항쟁과 6·25전쟁에서 낙동강 방어전선을 지켜낸 학도병들의 호국정신, 오랜 가난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정신으로 극복하고 이제는 지구촌 여러 개발도상국을 돕기 위해 세계로 뻗어가고 있는 새마을정신 등을 소개하고 있다.

경북도에서는 도내 청소년 교육·수련기관과 도서관, 초, 중학교 등에 '경북혼 이야기'를 배부하였으며, 누구나 인터넷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의 e-book(경북혼 이야기, 경북정체성 알림만화)에서 볼 수 있도록 했다.

▶ 담당부서 : 미래전략기획단 053-950-2693



오는 9월, 경주서 ‘이스탄불 인 경주’ 행사 개최

터키 이스탄불시 준비추진단 경상북도 방문

터키 이스탄불시 ‘이스탄불 in 경주’ 준비추진단(단장 압둘라만센 문화사회실장) 일행이 5월 14일 경상북도를 방문, 올해 9월 12일부터 22일까지 11일간 경주, 서울, 부산, 대구 등에서 개최예정인 ‘이스탄불 in 경주’ 행사의 일정, 프로그램 등을 논의하고 현장을 사전 점검했다.

‘이스탄불 in 경주’는 지난해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3의 성공 개최를 축하하고 한-터키 양국이 문화교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포스트 이스탄불-경주엑스포’ 행사로, 이스탄불시에서 12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터키 예술인 300여명이 참가하게 된다.

전국 최초 ‘여성·아동 안심귀가거리’ 조성

범죄예방경관개선사업 일환, 도내 전역에 확산키로

경상북도는 5월 12일 구미 천생중학교 강당에서 경상북도지사 권한대행 주낙영 행정부지사, 이시하 도의회의장, 정일용 도교육감 권한대행, 권기선 경북지방경찰청장과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최초로 ‘여성·아동 안심귀가거리 조성 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체험 행사를 가졌다.

이날 협약에 참여한 경상북도와 도의회, 경북교육청, 경북경찰청은 CPTED(범죄예방경관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공동 추진하는 ‘여성·아동 안심귀가 시범거리’ 성과를 도내 전역에 확산시키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경상북도, 원전산업 및 지역발전 협력체제 구축

한국전력기술(주)·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양해각서 체결

경상북도는 5월 15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한국전력기술(주)와 원자력 안전 및 해체기술 개발과 원전산업 육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또 5월 9일에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방폐장 안전성 증진 및 원자력 시설 해체폐기물 처분과 관련 산업육성을 위해 협력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경주시에 건설 중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등 지역의 원자력시설에 대한 안전성 증진은 물론 원전 해체 및 폐기물 기술개발과 향후 관련 산업육성에도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난대응 현장매뉴얼 개선방안 토론회 열어

6개 유형별 재난 주관부서 매뉴얼 개선방안 발표

경상북도는 5월 2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경상북도지사 권한대행 주낙영 행정부지사 주재로 재난 관련분야 교수·시민단체 대표, 원자력안전위·포항해경, 관계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대응 현장매뉴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낙영 도지사 권한대행은 “우리 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재난유형을 상정해 대처방안을 모색한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재난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난전문가와 함께하는 토론회 정례화”를 주문했다.

2015 대구·경북 세계물포럼 D-365카운트 시작

D-day 카운트다운 전광판 제막식 갖고 본격 준비 돌입

경상북도는 4월 11일 도청 현관에서 경상북도지사 권한대행 주낙영 행정부지사, 이인선 정무부지사, 홍중경 국제관계대사, 도청 실·국장과 이순탁 국제물운영위원회(ISC) 공동위원장, 지흥기 대경물포럼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5 대구·경북 세계물포럼 D-365일을 맞아 D-day카운트다운 전광판을 설치, 제막식을 갖고 1년 앞으로 다가온 세계물포럼의 성공개최를 다짐했다.

세계물포럼은 세계물위원회(WWC)가 1997년부터 3년마다 개최하는 지구촌 최대 물 관련행사로 2015 대구·경북 세계 물포럼은 2015년 4월 12일부터 4월 17일까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와 대구 Exco에서 열린다.



‘다문화가정 행복 지킴이 치료비 지원 사업’ 업무협약

영남대의료원, 최저생계비 200% 이하 다문화가구 200만원 한도 내 지원

경상북도는 4월 10일 영남대학교의료원에서 이인선 정무부지사, 이수정 영남대의료원 의무부총장, 김태원 영남대병원장, 시·군 다문화센터장, 다문화가족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남대학교의료원과 ‘다문화가족 행복지킴이 치료비 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경북도에서는 시·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를 발굴하고, 영남대학교의료원에서는 매년 1억원의 예산으로 대구·경북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중 최저생계비 200% 이하(4인가구 기준 3,261,640원)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질병으로 인한 입원·수술 및 기타 치료비(재활치료, 심리치료 등)를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기공식 가져

2015년말 완공, 새마을세계화의 메카로 조성



경상북도는 3월 26일 구미시 상모사곡동 현지에서 김관용 도지사, 박경국 안전행정부 1차관, 이철우 새누리당 경북도당위원장,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태환 위원장, 심학봉 국회의원, 심윤중 새마을운동중앙회장, 지역주민 등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사업' 기공식을 가졌다.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은 구미시 상모사곡동 일원 25만1천㎡의 부지에 총사업비 792억원을 투입, 2015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전시관, 글로벌관, 연수관, 새마을테마촌 등을 조성하는 국책사업이다.

제17회 경상북도 산업평화대상 시상식 열려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 근로자와 사용자 시상

경상북도는 3월 26일 도청 강당에서 김관용 도지사, 손인락 영남일보 사장, 송필각 도의회 의장, 고병헌 경북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정일 한국노총경북지역본부의장, 수상자와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7회 경상북도 산업평화대상 시상식'을 개최, 근로자부문 (주)영도벨벳 노조위원장 전상구씨, 사용자부문 (주)한화 구미사업장 사업장장 윤경식씨가 각각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근로자 부문 금상에는 황의석 에이케이컴텍(주) 노조위원장, 은상은 박남규 (주)신영 노조위원장, 동상은 박대진 롯데푸드(주) 김천공장 생산팀장, 최석진 (주)문경택시 노조위원장이 수상했고, 사용자 부문 금상은 이관호 유한킴벌리 김천공장 공장장, 은상은 안강현 영일기업(주) 사장, 동상은 김무영 (주)엠텍 대표이사과 박장흠 동화기업(주) 부사장이 각각 수상했다.

영천 신화랑풍류벨트 조성사업 기공식 가져

2015년까지 566억원 투입되는 국책사업, 3대문화권사업 선도사업

경상북도는 3월 25일 영천시 금호읍 황정리 일원에서 김관용 도지사, 한혜련 도의회 부의장, 김영석 영천시장, 지역기관 단체인 주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천 '신화랑풍류벨트 조성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

영천 신화랑풍류벨트 화랑설화마을 조성사업은 2015년까지 총 566억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으로 3대문화권사업의 선도사업으로 휴양레저형 공간으로 조성, 화랑정신과 설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설화재현마을과 화랑수련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화랑무예공연장 등 체험형 관광콘텐츠로 개발한다.

경상북도 동해안, 문화관광에서 에너지 중심지로!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 기공식, 원자력클러스터 추진 기폭제

경상북도는 3월 10일 경주시 양북면 현지에서 김관용 도지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수성 국회의원, 조석 한수원(주) 사장, 한국전력 그룹사 및 협력사, 지역주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 기공식을 가졌다.

한수원 본사는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일원에 부지면적 157,142㎡, 연면적 72,555㎡에 총사업비 2,797억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로 건설되며, 2015년 12월 사옥 건설이 완료되면 950명 정도의 인원이 근무하게 되어 경상북도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클러스터 추진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경북 상생 위한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사업 본격 추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경산시와 함께 양해각서 체결

경상북도는 3월 19일 경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김관용 도지사, 최경환 국회의원, 김범일 대구광역시장, 최영조 경산시 시장, 지역대학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사업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사업은 대구·경북의 상생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대도시권 광역교통난 해소를 위해 경상북도와 대구시, 경산시와 지역 정치권, 대학과 언론이 함께 협력하여 이루어낸 사업으로, 총사업비 2,789억원(국비 60%, 지방비 40%)을 투자, 2019년 개통을 목표로 대구 동구 안심역에서 하양역까지 총연장 8.77km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주요 노선은 신설역인 사북역과 경일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경산1대학교가 소재한 대학가를 거쳐 하양읍까지 연결된다.



아바둘라 게메다 에티오피아 하원의장, 경상북도 방문

김관용 도지사와 면담, 새마을 세계화 전수 감사 및 확대 요청

아바둘라 게메다 에피오피아 하원의장과 디바바 아브레타 주한에티오피아대사 일행이 3월 4일 경상북도를 방문, 김관용 도지사를 만나 에티오피아에 새마을운동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새마을운동뿐만 아니라 농업, 문화, 통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상북도와의 교류협력 확대를 요청했다.

이에 김관용 도지사는 “에티오피아 시범마을 현장방문 때 현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고, 또한 지난 해 방문에서도 기르마 월레 기오르기스 대통령과 재경부장관 등 에티오피아 정부의 의지를 볼 수 있었다. 앞으로도 에티오피아를 비롯한 저개발국의 빈곤감소를 위해 경상북도의 새마을운동 세계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어촌특성화 역량강화 대상마을 선정

경상북도는 2014년도 해양수산부에서 공모한 어촌특화발전 역량강화 대상마을에 포항 신창2리, 영덕 병곡2리 2개 마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마을에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올해 10월까지 국비 3천만원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주민 주도 마을자원발굴사업, 마을가꾸기사업, 어촌특화발전 예비계획서 작성 등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 “새마을운동 배우러 왔어요!”

경상북도는 새마을 시범마을 확대계획에 따라 베트남, 필리핀,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등 4개 국가 8개 지역 마을지도자, 해당지역 지방정부 공무원, 중앙정부 농업부 공무원 등 지역개발 담당자들을 초청, 5월 12일부터 5월 30일까지 3주간의 일정으로 경운대학교 새마을아카데미에서 ‘2014년도 새마을 시범마을 외국인 초청 새마을연수’를 실시했다.

■ 제42회 경상북도 어버이날 기념식

경상북도는 안동시와 공동으로 5월 8일 안동시민회관에서 경상북도지사 권한대행 주낙영 행정부지사, 김광립 국회의원, 이시하 도의회 의장, 안동시장 권한대행 최태환 안동부시장, 도의원, 지역기관단체장과 어르신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2회 어버이 날’ 기념행사를 개최, 타의 모범이 된 효행자와 유공 공무원·단체를 포상하고 격려했다.

■ 경상북도, 과학기술혁신역량 전국 4위 평가

경상북도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2013년 지역과학기술혁신평가에서 전국 4위를 차지, 이는 서울, 경기, 대전 등 수도권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순위이다. 특히 경북도는 과학기술혁신역량 5대 지표 중 네트워크 부문에서는 서울, 경기, 대전 등 수도권을 제치고 전국 최고 수준으로 분석됐다. (5대 지표 : 자원지표, 활동지표, 네트워크지표, 환경지표, 성과지표)

■ 산림교육 활성화 위한 민·관 업무협약 체결

경상북도는 5월 7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경상북도교육청·경북지방경찰청, 남부지방산림청, 녹색사업단 등 기관과 함께 (사)숲사랑소년단, (사)한국숲해설가협회경북협회, (사)한국숲유치원협회경북지회 등 3개 단체와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 도내 유아와 청소년 대상 산림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상습 가뭄지역 농촌용수개발사업 신규착수 확정

경상북도는 수리시설이 취약해 상습적으로 농촌용수 부족을 겪고 있는 울진 이평지구, 의성 중화지구가 ‘2014년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신규지구로 선정되어 국비 290억원을 확보, 울진 이평지구에 총 200억원을 투입해 저수지 1개소와 용수로 18.6km, 이설도로 2개소 2.9km 등을 신규 건설하고, 의성 중화지구는 총 90억원을 투입해 저수지 1개소, 용수로 9.4km, 이설도로 1개소 1.6km를 설치할 계획이다.

■ 경북도 소방헬기 19년 4,000시간 무사고 비행 달성

경상북도 119특수구조단 항공구조대가 1995년 6월 28일 발대해 이래 19년 4,000시간 무사고 비행이라는 신기원을 이룩했다. 4,000시간은 167일을 공중에 계속 떠있는 상태로 지구 둘레를 24회 비행한 거리이다. 경상북도 119특수구조단 항공구조대는 그 동안 총 2,347회 출동해 1,500여명의 인명을 구조했다.



■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영주시 선정

경상북도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선도지역(근린재생형)’ 공모사업에 영주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도시재생선도지역’은 도시재생 필요성과 주변지역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 국토교통부에서는 근린재생형(일반규모) 선도지역에 계획수립비 및 사업비로 4년간 총사업비 200억원(국비 100억원)을 지원하고, 올해에는 계획수립비(0.9억원) 및 사업비의 20%(20억원)를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 확대 시행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는 오는 7월 1일부터 축산물검사 대상에 닭을 포함하여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2016년까지 모든 가금류의 도축검사를 공무원 검사관이 실시할 예정으로, 우선 공무원 총원, 업체 준비 등을 위해 하루 8만 마리 이상을 도축하는 작업장부터 점진적으로 도입키로 해 도내에서는 상주 소재 (주)올품이 7월 1일부터 도 가축위생시험소 소속 축산물검사관의 상시 검사를 받게 된다.

■ 경북보건환경연구원, 측정·분석능력 숙련도 14년 연속 최우수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3월 국립환경과학원이 주관한 수질, 먹는 물, 폐기물 분야 등 3개 환경분야에 대한 측정·분석능력 숙련도 평가에서 14년 연속 ‘전국 최고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숙련도평가는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비롯한 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등 국내 국·공립 연구기관 및 민간 측정분석기관 중 108개 기관에 대해 실시됐다.

■ 경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2회 연속 전국 최우수 기관 선정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국 장기요양기관 3,66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인 ‘A등급’을 받아 2011년에 이어 2회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국 입소시설을 대상으로 98개의 평가지표에 대해 2년마다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경북약사회, 독거노인을 위한 방문약손사업 실시

경상북도는 4월 27일 대구 인터볼고호텔에서 경상북도약사회와 ‘독거노인 돕기 방문약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재능기부의 일환으로 경북약사회 소속 약사들과 도내 무의탁 독거노인간 1:1 결연을 맺고 약사회원들이 매월 1회 이상 독거노인의 가정을 방문해 복약지도, 상담, 폐의약품 수거 등 건강멘토 역할을 해 독거노인들의 건강을 돕는 사회공헌사업이다.

■ 경상북도수목원, 유아 숲 체험원 운영

경상북도수목원은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14년도 유아 숲 체험원을 운영한다. 올해 유아 숲 체험원은 지난 3월 7일부터 선착순 공개모집을 통해 포항·영덕지역 34개 유치원 및 어린이집 136개팀 4,008명의 참가신청을 받았으며, 숲속 생태체험, 야생화 심기, 산림부산물을 이용한 놀이터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 원자력 해체기술 선점 위해 한전KPS(주)와 상호협력

경상북도는 4월 24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이인선 정무부지사와 한전KPS(주) 강재열 신사업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전KPS(주)와 양해각서를 체결, 2050년까지 1,000조원대의 거대 시장 형성이 예상되는 원자력 시설 해체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핵심기술의 종합연구 및 개발, 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원전지역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 제3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경상북도는 포항시와 공동으로 4월 18일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경상북도지사 권한대행 주낙영 행정부지사, 도내 각급 기관단체장, 장애인과 가족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경북'이라는 슬로건으로 제34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4월 16일 진도해상 여객선 침몰사고에 따른 사회적 애도 분위기를 감안하여 '한마음 페스티벌' 등은 취소하고 기념식만 간소하고 엄숙하게 가졌다.

■ 경북도, 도시 세계화 우수 자치단체 인증

경상북도는 한반도 선진화 재단과 월간조선의 공동기획으로 전국 94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세계화 수준을 평가한 '2014 대한민국 도시 세계화 수준 평가'에서 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되어 4월 18일 한반도선진화재단 회의실에서 개최된 시상식에서 '도시 세계화 수준 우수 자치단체' 인증서를 수여받았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76개 기초자치단체 중 도내 경주, 구미시도 우수단체로 인증을 받았다.

■ 기업인발전협의회 기업에 금융우대 업무협약 체결

경상북도와 경북신용보증재단, 대구은행, 농협은행경북지역본부, 기업인발전협의회 5개 기관·단체는 4월 16일 금오산호텔에서 열린 기업인발전협의회 정기총회에서 '경북신용보증재단 기업인발전협의회 기업 금융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 경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기업체 모임인 '기업인발전협의회' 기업들을 대상으로 보증수수료 0.1%p 감면 및 보증한도 우대, 대출금리 0.5%p를 감면하는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 동해안 양식재해보험 대상 품종 확대

경상북도는 4월 10일자로 경북 동해안 양식업계의 해묵은 과제였던 양식재해보험 대상 품종이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 동안 태풍, 적조, 냉수대 등에 가장 취약했던 해상가두리 양식 어종인 우럭, 참돔과 동해안에서 오랫동안 양식되어 오던 대표 브랜드 우렁쟁이와 신품종으로 각광받는 강도다리도 대상 품종으로 포함됐고 당해 양식시설도 함께 적용된다.

■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공모 전국 최다 선정

경상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공모에서 전국최다인 16개 지구(공동생활홈 5개, 공동급식시설 7개, 작은목욕탕 4개)가 선정되어 총 17억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은 공동생활홈, 급식시설과 함께 작은 목욕탕을 설치해 농촌 고령자의 주거·영양·위생 등 생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복지 사업이다.

■ 경북도, 지역산업진흥계획 인센티브 42억원 쾌거

경상북도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14년 지역산업진흥계획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비 42억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된다. 이번 평가는 수도권 및 세종시를 제외한 13개 광역시·도의 지역특화사업을 평가한 것으로, 경북도는 올해 우수기관 선정 인센티브 42억원 포함, 국비 168억원을 R&D 및 기업으로 해결, 상품화 지원, 인력양성 등 지역특화사업에 집중 투자기로 했다.

■ 전국 최초 '여성폭력 One-stop 대응 시스템' 구축

경상북도는 3월 24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경북경찰청, 여성긴급전화 1366경북센터, 경북상담소시설협의회 등과 함께 전국 최초로 '여성폭력 One-stop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도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지원, 도청은 피해자 보호 및 임시보호소(도내 24개 협약 병원) 제공, 1366경북센터는 대응시스템 운영, 지역 전문상담소는 상담서비스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기로 했다.



■ 김관용 도지사, 글로벌 최고 리더십상 수상

김관용 도지사가 '이스탄불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성공개최와 코리아 실크로드 프로젝트, 새마을 세계화사업 등 세계 속에서 글로벌 경북의 위상을 드높인 점을 인정받아 미주 한인커뮤니티 중 최대 규모인 LA 한인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글로벌 최고 리더십상'을 수상했다. 글로벌 최고 리더십상은 정부나 기관,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진출, 교류협력 분야 등에 기여한 인물이나 기관에 시상하는 상이다.

■ 의료관광 우수병원 3곳 지정서 수여

김관용 도지사는 3월 19일 도지사 접견실에서 경북의 의료관광 사업을 선도해 나갈 우수병원 3곳에 대해 지정서를 전달하고 사업을 독려했다. 이날 지정서를 받은 병원은 포항선린병원과 경산세명병원, 영천순한방병원 등 3곳으로 의료관광을 희망하는 도내 의료기관 대상 공모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선정되었다.



■ 전·현직 총학생회장단 독도사랑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김관용 도지사는 3월 15일 경일대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된 '대구·경북을 사랑하는 전·현직 총학생회장단 독도사랑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석해 지역의 영리더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대학 청년 리더 20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여 독도사랑 선언문 낭독, 플래시몹 등을 통해 독도수호 의지를 표명하고, 동도·서도로 팀을 나누어 체육대회를 진행하며 독도사랑 실천을 다짐했다.

■ 경북도, 농식품부 향토산업평가 전국 최고

경상북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2013년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실적 평가'에서 '안동 마 율복합화사업'이 최우수로 선정되어 국비 3억원을 지원받고, 우수로 평가받은 '의성 마늘양념명품화사업'이 국비 2억원을 지원하는 등 전국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

■ 경북도, '일자리 공시제' 우수기관 선정

경상북도는 '2013년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 자치단체에 선정되어 3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열린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고용노동부장관상 수상과 함께 1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다.

■ 경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속속 입주

경북 김천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조달품질원(舊 조달청 품질관리단)이 4월 1일 신청사 개원식을 개최, 경북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가운데 우정사업조달사무소, 기상통신소에 이어 세 번째로 이전을 완료했다. 또 3월 19일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신청사를 개청하였으며, 3월 12일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농림축산검역본부' 신청사 건립 착공식'을 개최, 내년 10월 완공 예정이다.

■ 정책연구위원회 외부위원 위촉장 수여



경상북도의회는 1월 6일 대구한의대학교 임원현 교수를 의원연구단체 산림산업발전연구회의 외부전문가 위원으로 위촉했다.

산림산업발전연구회는 지난 해 말 등록을 하고, 대표 김기홍 도의원 외 12명을 회원으로 구성, 새로운 산림휴양 레포츠 문화의 정착, 지역 산림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정책연구활동을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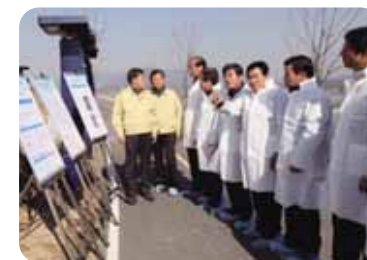
■ 박병훈·장세현·황이주 의원, 제2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우수상 수상

경상북도의회 박병훈 의원(경주), 장세현 의원(포항), 황이주 의원(울진)은 1월 23일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은 4년마다 우수의정활동 사례를 공모하여 시상하며, 전국 시·도의회회장협의회가 주최한다.



■ 농수산위원회, 비회기중 AI(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 현장점검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정상진)는 1월 27일 비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AI(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대비하여 경북도의 강력한 방역대책을 주문하고, 구미 해평 철새도래지를 찾아 현장점검 활동을 실시했다.

■ '日 중·고교 교과서 제작지침 독도 영유권 명기방침 확정' 규탄

경북도의회는 1월 2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고교 교과서 제작지침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명기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철회 및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일본 정부의 교과서 제작지침 왜곡은 아직도 제국주의적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며, 청소년들에게 거짓된 역사교육관 주입으로 잘못된 과거사와 한일 갈등관계를 대물림시키는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질책했다.



〈제267회 임시회 결산〉



경상북도의회, 2014년 첫 임시회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 업무보고 받아

경상북도의회는 2월 6일부터 2월 17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67회 임시회를 개최, 2월 6일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김관용 도지사와 이영우 도교육감으로부터 2014년도 경북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2월 6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각 실국별 업무보고와 함께 각종 민생관련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2월 17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최종처리하고 폐회했다.

장경식·홍진규 의원, '제1회 우수의정 대상' 수상



경상북도의회 장경식(포항5), 홍진규(군위) 도의원은 2월 13일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에서 열린 '제1회 우수 의정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하는 '우수 의정 대상'은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광역의회 의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상으로 올해 처음 시행됐으며, 전국 16개 시·도의회의장으로부터 의정활동이 우수한 의원들을 추천받아 4년마다 시상, 의정활동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도 지닌다.

일본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기념행사 규탄 결의대회 개최

경상북도의회는 2월 20일 도의회 전정에서 송필갑 도의회 의장, 박성만 부의장, 한혜련 부의장, 장경식 독도수호특별위원장 등 도의원과 안용복재단 사무처장,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윤한우 경북지부장과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의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기념행사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일본은 과거 침략 전쟁기간 동안 한국과 이웃 아시아 국가들에게 자행한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하지 않고 우리 영토인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는 억지 주장으로 2005년 '다케시마의 날'을 '시마네현 조례'로 제정하여 매년 2월 22일에 기념행사를 강행하고 있는데 대해 강력 규탄하고, '대한민국의 합법적 영토주권을 부정하는 명백한 침략행위와 역사왜곡'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영식 의원, 대한민국 대표 의정대상 수상



경상북도의회 이영식 의원(안동)이 지난 2월 14일 (사)대한기자협회 중앙회 회의실에서 대한민국 대표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대표 의정대상은 전국 광역시·도의회를 대상으로 의정활동이 우수한 의원에게 시상하며, (사)대한기자협회 주최로 (사)대한기자협회 광역협의회 추천을 받아 중앙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일본 '기슈광산의 진실을 밝히는 모임' 관계자, 경북도의회 방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추모터 경북도 기부 의사 밝혀

일제강점기 일본 기슈광산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리다 희생된 한국인에 대한 진실을 알리고자 결성한 재일본 '기슈광산의 진실을 밝히는 모임' 관계자(사토쇼진, 김정미씨)가 2월 25일 경북도의회를 방문, 강제징용 희생자 추모터를 경북도에 기부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기슈광산은 총알을 만들기 위해 구리를 캐내던 광산으로 이시하라산업이 1938년부터 1978년까지 운영했고, 일제강점기 때 한국인 1,300여명이 이곳으로 끌려가 혹독한 강제노역에 시달렸다.

'기슈광산의 진실을 밝히는 모임'은 1997년 2월 결성되어 일본의 역사학자와 시민·재일교포 등 250명으로 이뤄졌으며, 이 단체는 2008년 구마노시와 이시하라산업에 추모비 건립 지원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부지를 직접 사들여 2010년 3월 추모비를 세우고 추모 공간을 만든 바 있다.



■ 제268회 경상북도의회 긴급 임시회 집회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



경상북도의회는 2월 20일 경상북도지사의 임시회 집회요구에 따라 2월 25일 1일간 임시회를 개최, 지난 2월 17일 제26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별표 중 포항시 “나” 선거구 부분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원 1인당 인구수가 포항시의회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와 비교하여 상·하 60%의 편차범위를

벗어나므로 안전행정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에 재의요구 지시하였고, 이날 본회의에서 재의요구안대로 가결되었다.

〈제269회 임시회 결산〉



■ 경북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도정질문, 민생관련 조례안 처리 ■

경상북도의회는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69회 임시회를 개최, 3월 20일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였으며,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도정질문을 실시했다. 3월 21일부터 4월 2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각종 안건 등을 심사하고, 4월 3일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최종 처리하고 폐회했다.

■ 도정질문 요지



■ 나현아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도내 노인들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도움을 받기가 다소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노인 관련 사회적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 시설 건립에 대한 견해, 낙후된 경로당의 재래식 화장실 개조 및 시설의 개선 대책, 도청 신도시 주변 낙후된 시·군과 함께 성장·발전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 농업기술원 및 농업자원관리원과 같은 농업연구기관을 신도청과의 접근성·저렴한 지가·풍부한 농업 인력 등 입지가 좋은 의성으로 이전하는데 대한 견해 등을 질문했다.

■ 김명호 의원(문화환경위원회)

‘정부3.0’ 구상이 또 하나의 정치적 수사(rhetoric)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의식의 혁신과 인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하고 특히 의회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세부터 개선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 견해, ‘한·캐나다 FTA’ 타결에 따른 도내 축산농가 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 신도청 시대를 맞아 하늘 길을 다시 열기 위해 경상북도와 북부지역 시·군이 함께 예천공항 재개항을 추진하는데 대한 지사님의 견해, 웅도경북의 새 도움지인 도청신도시에 ‘국립소방방재박물관’ 유치를 추진하는데 대한 견해 등에 관해 질문했다.



■ 광광섭 의원(농수산위원회)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이 도내 시·군별로 재정여건에 따라 교육경비 집행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북도의 대책, 교육경비 보조에 있어 농촌의 어려운 교육여건을 감안하여 도 차원에서 교육예산을 파악하여 각 사업별로 도비를 보조하는데 대한 지사님의 입장,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등 교통복지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 경북도의 교통복지 수준이 많이 뒤쳐져 있는데 도내 교통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도차원의 대책 등에 대해 질문했다.



■ 이시하 의원(건설소방위원회)

2015년 9월에서 10월경 문경에서 개최하는 제6회 세계군인체육대회 운영비를 전액 국비로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에 북한 선수단 참가를 이끌어내기 위해 도 차원에서 정부 관련부처와 진지하게 논의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 입장, 세계군인체육대회 엠블럼 마크에 개최지인 문경을 표기한 단일 엠블럼을 채택하기 위한 대책, 도내 수돗물(상수도) 누수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 향후 노후 수도관 교체 계획 등을 질문했다.

■ 김희수 의원(기획경제위원회)

현재의 동해안발전추진단 조직을 포항지역에 상주시켜 향후 환동해안 시대를 열어가는 본부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하고 환동해 경제권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실행 로드맵 마련 등 경북도 차원의 동해안 발전전략은, 지방의회 활성화 위해 정책보좌관제도의 도입 혹은 전문위원실과 입법정책관실의 기능강화에 대한 도지사님의 입장과 향후 대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한 견해, 현재 의회사무처의 인력구조를 행정지원 인력중심에서 입법 및 정책수립관련 인력중심으로 전환하는데 대한 견해 등에 관해 질문했다.



■ 건설소방위원회, 재난재해 대응태세 점검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장두옥)는 3월 20일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을 전격 방문하여 산불, 해빙기 안전사고, 화학사고 등에 대비한 대응체제를 긴급 점검하고, 긴급 주요상황 발생시 상황 접수·전파·출동, 진화 등 대응체계 구축에 대하여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 제9대 후반기 의장 보궐선거, 이시하 의장 선출 의회운영위원장에 김희수 의원, 문화환경위원장에 박기진 의원

경상북도의회는 제9대 후반기 의장 보궐선거에서 이시하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4월 3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된 각종 민생 관련 조례안 14건을 처리하고, 송필각 의장이 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을 위해 의원직을 사직함에 따라 의장선거와 함께 공식인 의회운영위원장 및 문화환경위원장의 보궐선거를 실시, 의회운영위원장에 김희수 의원, 문화환경위원장은 박기진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김말분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실시



경상북도의회(의장 이시하)는 5월 8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운영 전반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결산검사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기금 금고의 결산 등에 대한 서류심사, 현지 출장 검사를 통하여 예산집행과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적법성, 사업집행의 적정성, 예산낭비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하고, 결산검사를 통한 개선사항 및 수범사례 등을

을 2015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도록 의견을 도지사 및 교육감에게 제출했다.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지난 3월 20일 제26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박진현, 이경임, 김원석 도의원 3명을 비롯하여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과 회계·재무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 전직공무원 2명 등 총 9명이며, 기획경제위원회 박진현 위원장이 결산검사 대표위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이경임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 5월부터 전면 무료

경상북도는 5월부터 국가예방접종대상 감염병에 소아폐렴구균이 포함됨에 따라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 무료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무료접종 대상은 2개월에서 59개월까지의 소아이며, 접종은 생후 2, 4, 6개월에 3회 기초접종 후 생후 12~15개월에 1회 추가접종을 하면 된다. 폐렴구균 단백결합 백신 10가 또는 13가 두 종류가 있으며, 두 종류 모두 감염증 예방에 효과적이지만 교차접종이 되지 않아 두 백신 중 하나를 선택해 접종하게 된다.

한편, 국가 예방접종지원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금년부터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BCG, B형간염, 수두 등 13종의 백신을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다.

소아폐렴구균을 포함한 정기예방접종은 보건소 및 가까운 위탁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 또는 시·군·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053-950-2428

경상북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사업 실시



경상북도는 5월 15일부터 7월 18일까지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사업은 신체적·경제적으로 정보접근 및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보조기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급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이는 활용계획서를 포함한

소정의 신청서류를 작성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관할 시·군 접수처에 제출하면 된다.

보급할 장비는 '시각장애유형'의 독서확대기, 점자정보단말기, 화면확대 S/W, '지체·뇌병변장애유형'의 특수키보드, 특수 마우스, 터치모니터, '청각·언어장애유형'의 영상전화기, 의사소통보조기기 등 총 68종이다.

제품 가격의 80%를 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다만,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장애인은 본인부담액 20% 중 절반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양식과 자세한 사업안내는 도 홈페이지(www.gb.go.kr/알림마당)나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www.at4u.or.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신청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1588-2670을 통해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보급대상자 선정은 기기활용도, 소득수준, 장애등급, 적합성 등을 기준으로 서류평가, 심층상담, 외부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하고 선정 결과는 8월 14일경에 발표할 예정이다.

▶ 담당부서 : 정보통신담당관실 053-950-2176

커 가는 내일(my job)의 꿈! 내일키움통장사업 가입자 모집

자활참여자에게 내일키움장려금 지급으로 자립자금 마련

경상북도는 일하는 저소득층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기 위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성실참여자를 대상으로 내일키움통장사업 가입자 230명을 모집한다.

내일키움통장사업은 성실히 일하는 자활참여자들에게 내일키움장려금을 지급하고, 본인 저축에 대한 자활근로사업단의 수익금 등을 추가 지원해 자립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저소득층이 자활사업에 성실히 참여하고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씩 적립할 경우, 내일키움장려금 월 10만원, 내일키움수익금 월 15만원을 지원해 3년 만기 취·창업시 최대 1,300만원 수급이 가능하다.

내일키움통장 적립금은 3년 만기시 지급되며,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 기술훈련, 소규모 창업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2013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한 내일키움통장사업은 현재 460명이 가입했다.

내일키움통장 가입을 원하는 경우 3월에서 10월까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시·군 지역자활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053-950-2945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 대폭지원 '축산선진화' 기틀 마련

올해부터 태양광발전시설, 경관개선시설 등 지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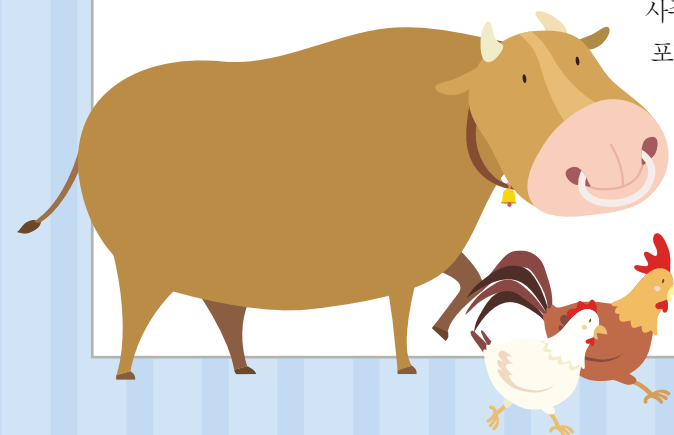
경상북도는 한·미 FTA를 비롯한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 등 대외 개방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를 대폭 지원키로 하고, 우선 올해 1차로 200억원의 예산을 확정하고 희망농가의 신청을 받는다.

올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대상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 축산법에 등록된 준전업농 규모 이상의 한우우, 돼지, 젓소, 닭, 오리, 꿀벌, 사슴, 염소농가이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축사, 축사시설 및 축산시설(방역시설, 생산성향상 시설) 등에 대해 지원하며, 특히 올해부터 지원 범위를 확대해 에너지 절감 시설(지열냉난방시설), 전기시설(태양광발전시설)과 축사환경 및 경관보전을 위한 축사주변 나무식재, 조경식물 식재, 화단공사 등 주변환경 개선시설도 포함했다.

지원방식은 축사규모에 따라 보조포함방식(보조 30%, 용자 50%, 자부담 20%)과 이차보전(용자)방식(용자 80%, 자부담 20%)으로 구분 지원되며, 희망 농가는 축사 소재지의 시·군청 또는 읍·면·동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 담당부서 : 축산경영과 053-950-2885



사랑하는 부모님께 치매 검진을 권하세요!

경상북도는 도내 보건소에서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무료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결과에 따라 도내 32개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도는 올해 도내 25개 보건소에서 58,934명에 대해 치매 선별검사를 실시, 이 중 치매환자 407명을 발견했다.(2014년 4월말 기준)

치매는 뇌세포 손상이 적을 때 발견해 원인을 치료하고, 뇌세포의 기능을 증진시켜 이상행동 증상들을 완화함으로써 그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고, 치매 증상을 보이는 양성뇌종양, 신경계 감염, 비타민B 부족, 전해질 불균형 등의 경우에는 그 원인을 치료함으로써 완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치매에 대한 정기검진 실시와 조금이라도 의심증세가 있을 경우 바로 검진을 받아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치매의 대표적인 증상은 기억장애인데 최근 들었던 이야기를 잊어버려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몰라 찾아 헤매기도 한다. 이외에도 늘 사용하던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언어장애, 길을 잃거나 자주 가던 곳을 가지 못하는 경우, 계산능력 저하, 사교적 이었던 분이 외출하기 싫어하고 집안에만 있으려 하거나, 이기적으로 변하는 성격과 감정의 변화, 이상행동 등 다양한 증상이 있다.

▶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053-950-2378



경상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인하

경상북도는 올해 도내 건설공사에 적용하는 품질시험 수수료를 지난해보다 평균 38% 인하했다.

올해 품질시험 수수료 인하는 국토교통부의 품질시험비 산출단위량기준의 변경(감소)에 따른 것으로, 건설현장에서 주로 실시하는 다짐시험의 경우는 30.8%(180,600원 → 125,000원), 현장드릴도시험의 경우는 71.9%(174,100원 → 49,000원) 등으로 대폭 인하됐다.

품질시험 수수료는 도 홈페이지(www.gb.go.kr) '알림마당' 및 종합건설사업소 홈페이지(gunsul.gb.go.kr) '정보마당-품질시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담당부서 : 종합건설사업소 교량안전관리과 053-602-5864

일본뇌염 예방접종 대상 생후 12개월~만12세 아동 접종 권고

경상북도는 일본뇌염 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예방을 위해서 도내 방역취약지 9,460개소에 방역장비 1,715대를 동원해 4월부터 10월까지 모기 방제를 실시한다. 아울러 모기유충의 서식지가 되는 물웅덩이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고, 질병정보 모니터망 등을 활용하여 환자 발생 감시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일본뇌염 예방접종 대상이 되는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아동은 표준일정에 맞춰 예방접종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일본뇌염 Q&A

Q1. 일본뇌염이란 어떤 질병인가요?

A1. 일본뇌염 매개모기(작은빨간집모기)에 물렸을 경우 혈액내로 전파되는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의해 급성으로 신경계 증상을 일으키는 감염병으로, 뇌염이 발생하면 사망률이 높고, 회복되더라도 신경계 합병증 발생 비율이 높은 질병입니다.

Q2. 일본뇌염의 증상은 어떠한가요?

A2. 일본뇌염 매개모기에 물린 사람의 95%는 무증상이며, 일부는 열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극히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초기에는 고열, 두통, 구토, 복통, 지각 이상, 급성기에는 의식장애, 경련, 혼수, 사망에 이를 수 있고, 회복기에는 언어장애, 판단능력저하, 사지운동저하 등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3. 일본뇌염 매개모기에 물리면 일본뇌염이 발생하나요?

A3. 모든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일본뇌염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본뇌염바이러스를 가진 모기에 물렸을 경우 극히 일부에서 일본뇌염이 발생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매년 일본뇌염 매개모기 감시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일본뇌염 매개모기에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계속 검사하고 있습니다.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있는 일본뇌염모기가 발견될 경우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합니다.

Q4. 일본뇌염 환자와 접촉하면 일본뇌염에 걸릴 수 있나요?

A4. 일본뇌염은 사람 간에는 전파되지 않습니다.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를 일본뇌염 모기가 흡혈한 후 사람을 물었을 경우에 전파됩니다. 그러므로 일본뇌염 경보가 발생하면 모기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새벽과 해가 질 무렵 저녁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일본뇌염 매개모기 유충은 어디에 살고 있나요?

A5. 일본뇌염 매개모기는 주로 논과 연못, 관개수로, 미나리밭, 빗물고인 웅덩이 등 비교적 깨끗한 물에서 서식합니다. 모기 구제는 성충보다는 유충구제가 더욱 효과적이므로 거주지 주변 웅덩이가 있을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 알려 방제하도록 합니다.

Q6. 일본뇌염 예방접종은 언제 받나요?

A6. 매년 여름철에 받아야 하는 계절접종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일본뇌염 예방접종은 권장접종 시기에 맞춰 연중 어느 때나 접종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세계 젊은이들을 포고 비상하다!

경상북도는 1500년 전 소년리더로 우리 민족
최초 통일국가의 밑거름이 된 **화랑정신**으로부터
지식인이 되어 실천할 줄 아는 **선비정신**과
나라가 위태로울 때 앞장서는 **호국정신**
시대의 어려움을 스스로 이겨내고 헤쳐나간 **새마을정신**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 정신문화의 본산입니다.

이러한 경북의 혼은 스카우트 정신에서 강조하는
애국&봉사정신과 일맥상통합니다.
경상북도는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스카우트 여러분들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함께 비상할 것입니다.**



더 잼버리
Just
Jamboree

4th International Patrol Jamboree
제4회 국제패트롤잼버리

기간 : 2014. 8. 1 ~ 8. 6 장소 : 경상북도 상주시 강창나루공원 참가규모 : 45개국 10,000명

2015 대구·경북 세계 물 포럼

7th World Water Forum
Daegu & Gyeongbuk, Korea

기간 2015. 4. 12 ~ 17 (6일간)

장소 대구 EXCO,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Water for Our Future"

규모 국가정상급 포함 각국 정부, 국제기구, 기업,
시민단체, 학계 등 연인원 4만여 명

내용 포럼 - 4개 주요과장별(주제별·정치적·지역별·과학기술) 논의 및 시민포럼
EXPO & Fair - 물 관련 우수 정책, 제품, 기술 등 전시

세계물위원회(WWC)가 전 세계 물 문제 해결을 위해
매 3년마다 개최하는 물 분야 최대 국제행사

The World Water Forum is the world's largest meeting on water and is organized every
three years by the World Council. The 7th World Water Forum will provide an opportunity
to secure and implement concrete actions to build a water-secure future.